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 특성을 응용한
패션쇼 메이크업 제안 연구

2015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김 은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 특성을 응용한
패션쇼 메이크업 제안 연구



HANSUNG
UNIVERSITY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김 은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 특성을 응용한 패션쇼 메이크업 제안 연구

A Proposal of Make-up Application to a Fashion Show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Madeleine Vionnet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김 은 진

김은진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 특성을 응용한 패션쇼 메이크업 제안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김 은 진

본 연구는 인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의 몸을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의복을 디자인한 패션의 건축가라 불리우는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의 작품세계 고찰을 통해 그녀의 디자인 특성과 현 시대의 감성을 균형감 있게 결합시킨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들렌 비오네는 인체를 존중하여 옷이 사람의 몸을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으며, 그녀가 개발한 바이어스 재단과 입체재단 등 다양한 기법은 현대 패션의 기초가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자신만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성과 혁신적이며 선구자적인 기술력을 통해 옷감과 사람의 몸을 조화시켜 여성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발현시킨 비오네는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뷰티 학문에 있어 그녀의 디자인이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폐점한지 100여년이 지난 현재 비오네 하우스는 새롭게 재탄생 되었다. 이에 그녀의 작품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패션 쇼 메이크업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마들렌 비오네가 왕성히 활동 했던 20세기 초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기준으로 전 후 비오네의 삶과 당시 시대적인 배경,

예술사조등을 통하여 비오네의 디자인 특성을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연구에서는 비오네의 디자인 특성이 효과적으로 나타난 작품을 제시하고 의상디자인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마들렌 비오네는 1912년부터 1939년까지 활동하였으며 1910년대에는 동양풍의 의상으로 고대 그리스의 키톤과 같은 유연함과 기모노의 흐르는 라인을 보여주었으며, 1920년대에는 단순하고 기하학적이며 몸을 구속하지 않는 튜블러 실루엣과 색과 문양의 점진적 반복을 통해 새로운 비례미를 구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1930년대에는 성인풍의 모드로 전환되며 고대 그리스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우아하고 관능적인 드레스들과 낭만주의의 부활로 로맨틱한 크리놀린풍의 드레스들도 보여 졌다.

이를 통해 비오네는 시대적인 흐름을 수용하며 당시 지배적인 예술사조였던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조와 자연의 아름다운 곡선을 모티브로 하는 아르누보와 단순함과 기하학적인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아르데코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조형적 특징으로는 유연한 인체의 흐름을 위하여 인위적인 구조물을 제거하고 크레이프, 저지, 실크 등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들을 사용하였으며 피부 톤과 유사한 색조와 소재의 광택을 이용하여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현대 의복 구성의 기초가 되는 바이어스 재단과 입체재단을 창안하여 인체를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시도가 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의 특성을 통하여 비오네의 작품에서 표현된 미적 특성은 당시 유행하였던 예술사조인 아르데코와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비오네의 디자인에서 나타난 단순하고 간결한 실루엣과 기하학적인 문양, 단순화된 문양의 반복 등으로 모던한 이미지의 절제미를 나타내었으며, 낭만주의의 부활로 나타난 크리놀린 풍의 드레스와 입체적인 장미 문양, 툴 소재의 사용으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나타내며 장식적인 요소에 의한 로맨틱한 여성미가 나타났다. 비오네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우아한 여성의 관능미는 광택 있는 소재와 바이어스 재단 및 드레이핑에 의해 몸에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연출하며

관능적인 여성미를 표현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패션쇼 메이크업 제안에서는 비오네의 디자인의 특징이 가장 잘 표현된 작품을 모티브로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메이크업 제안에 있어 비오네의 디자인의 특징이었던 자유로운 소재 사용과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패브릭과 자수를 이용한 메이크업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입체감을 살린 아이 메이크업이 가능하였다. 비오네의 디자인적 특성을 살린 도형을 이용한 메이크업이나 드레이핑의 형태를 이용한 메이크업 제안을 통해 다른 디자이너들과 구별되는 마들렌 비오네만의 차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패션쇼 메이크업 제안을 통해 의상디자인에서 사용되는 소재나 기법을 응용한 다양한 포인트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마들렌 비오네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통한 패션 쇼 메이크업 연구를 통해 메이크업의 재료나 기법이 다양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의 표현은 토탈 코디네이션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패션 쇼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시즌 트렌드 뿐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의 철저한 작품분석을 통한 메이크업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시대를 초월하는 미를 추구하며 기존의 전통법칙을 깨는 새로운 시도로 자신만의 독특한 미의 표현방식을 창출해낸 마들렌 비오네의 작품세계 연구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뷰티 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요어】 바이어스재단, 입체드레이핑, 마들렌 비오네, 아르데코, 아르누보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마들렌 비오네의 생애적 배경	3
2.1. 마들렌 비오네의 생애	3
2.2. 마들렌 비오네의 시대적 배경	6
2.3. 마들렌 비오네 작품 속에 표현된 예술사적 특성	16
2.3.1. 아르누보	16
2.3.2. 아르데코	19
2.3.3. 초현실주의	21
III.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25
3.1. 형태	25
3.1.1. 실루엣	25
3.1.2. 장식	28
3.2. 소재	30
3.3. 색채	30
3.4. 재단	33

IV.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의 미적 특성	36
4.1. 현대적 감각의 절제미	36
4.2. 낭만적 감각의 로맨틱한 여성미	37
4.3. 우아한 여성의 관능미	38
V.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을 응용한 패션메이크업 제안 ...	40
5.1. 작품제작의도	40
5.2. 모던한 이미지의 작품을 응용한 메이크업 제안	41
5.2.1. 블랙 시스루 드레스	41
5.2.2. 바이어스 컷 드레스	46
5.2.3. 아르데코 문양 드레스	51
5.3. 로맨틱한 이미지의 작품을 응용한 메이크업 제안	56
5.3.1. 라메 크리놀린 풍의 드레스	56
5.3.2. 비오네 로즈 드레스	61
5.3.3. 별무늬가 있는 쉬폰 드레스	66
5.4. 엘레강스한 이미지의 작품을 응용한 메이크업 제안	71
5.4.1. 가디스 드레스	71
5.4.2. 새틴 이브닝드레스	76
VI. 결론	81
참고문헌	85
ABSTRACT	88

표 목 차

<표 1> 1910년대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분석	9
<표 2> 1920년대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분석	12
<표 3> 1930년대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분석	15
<표 4> 예술사조에 나타난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분석-아르누보	23
<표 5> 예술사조에 나타난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분석-아르데코	24
<표 6> 작품1:블랙홀-모티브 디자인	42
<표 7> 작품1:블랙홀-이미지 맵	43
<표 8> 작품1:블랙홀-일러스트	44
<표 9> 작품1:블랙홀-작품사진	45
<표 10> 작품2:계획된 우연(Planned Contingency)-모티브 디자인 ·	47
<표 11> 작품2:계획된 우연(Planned Contingency)-이미지 맵	48
<표 12> 작품2:계획된 우연(Planned Contingency) -일러스트	49
<표 13> 작품2:계획된 우연(Planned Contingency)-작품사진	50
<표 14> 작품3:공존-모티브 디자인	52
<표 15> 작품3:공존-이미지 맵	53
<표 16> 작품3:공존-일러스트	54
<표 17> 작품3:공존-작품사진	55
<표 18> 작품4:찬란했던 기억저편-모티브 디자인	57
<표 19> 작품4:찬란했던 기억저편-이미지 맵	58
<표 20> 작품4:찬란했던 기억저편-일러스트	59
<표 21> 작품4:찬란했던 기억저편-작품사진	60
<표 22> 작품5:꽃에 물들다-모티브 디자인	62
<표 23> 작품5:꽃에 물들다-이미지 맵	63
<표 24> 작품5:꽃에 물들다-일러스트	64
<표 25> 작품5:꽃에 물들다-작품사진	65
<표 26> 작품6:블루스타-모티브 디자인	67
<표 27> 작품6:블루스타-이미지 맵	68

<표 28> 작품6:블루스타-일러스트	69
<표 29> 작품6:블루스타-작품사진	70
<표 30> 작품7:뜰을 벗어나-모티브 디자인	72
<표 31> 작품7:뜰을 벗어나-이미지 맵	73
<표 32> 작품7:뜰을 벗어나-일러스트	74
<표 33> 작품7:뜰을 벗어나-작품사진	75
<표 34> 작품8:숲의 여신-모티브 디자인	77
<표 35> 작품8:숲의 여신-이미지 맵	78
<표 36> 작품8:숲의 여신-일러스트	79
<표 37> 작품8:숲의 여신-작품사진	80



그림 목 차

<그림 1> 마들렌 비오네	3
<그림 2> 1900년대 코르셋	3
<그림 3> 이사도라 던컨	5
<그림 4> 비오네의 입체재단	5
<그림 5> S자 스타일	7
<그림 6>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 호블 스커트, 미나레 스타일, 하렘팬츠	7
<그림 7> 테일러드 수트	8
<그림 8> 밀리터리 스타일	8
<그림 9> 밀리터리 스타일	8
<그림 10> 장 파투의 테니스 의상	10
<그림 11> 수영복 패션쇼, 프랑스 도빌	10
<그림 12> 플레퍼 룩	11
<그림 13>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패턴	11
<그림 14> 롱 앤 슬림 실루엣	13
<그림 15> 어깨 패드가 들어간 데이 드레스	13
<그림 16> V자로 깊게 판 테콜타주	14
<그림 17> 자수를 대신한 문양	14
<그림 18> 빅토르 오르타의 계단	17
<그림 19> 외젠 그라세의 봄	17
<그림 20> 아르누보 패션	18
<그림 21> 호블, 페그탑 스커트	18
<그림 22> 입체파	20
<그림 23> 아르데코 패션	20

<그림 24> 해변가에 나타난 얼굴과 과일 그릇의 환영	21
<그림 25> 기억의 영속성	21
<그림 26> 구두 형상의 모자	22
<그림 27> 바닷가재 그림 드레스	22
<그림 28> 동양풍의 드레스	26
<그림 29> 그리스 키톤 풍의 드레스	26
<그림 30> 역동성을 강조한 드레스	27
<그림 31> 롱 앤 슬림 실루엣 드레스	27
<그림 32> 프린지 장식	28
<그림 33> 주름 장식	28
<그림 34> 비오네 로즈	29
<그림 35> 리본 장식	29
<그림 36> 피부색과 유사한 색상	31
<그림 37> 그라데이션	31
<그림 38> 내추럴 컬러	32
<그림 39> 블랙라인	32
<그림 40> 사각형 재단	34
<그림 41> 원형 재단	34
<그림 42> 삼각형 재단	35
<그림 43> 입체 재단	35
<그림 44> 모던한 이미지	37
<그림 45> 직선적인 실루엣	37
<그림 46> 로맨틱한 이미지	39
<그림 47> 엘레강스한 이미지	39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인체의 해부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의 몸을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의복을 구성한 패션의 건축가라 불리우는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 : 1876~1975)의 작품세계 고찰을 통해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적 특성과 현 시대의 감성을 균형감 있게 결합시킨 패션 메이 크업을 제안 하고자 한다.

마들렌 비오네는 인체를 존중하여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으며, 그녀가 개발한 바이어스 재단과 입체재단 등 다양한 기법은 현대 패션의 기초가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어오고 있다. 또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 1960~), 요지야마모토(Yohji Yamamoto : 1943~)등 많은 천재 디자이너들의 패션 컬렉션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이렇듯 마들렌 비오네는 자신만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성과 혁신적이며 선구자적인 기술력을 통해 옷감과 인체를 조화시켜 여성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발현시킨 디자이너로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뷰티학문에 있어 그녀의 디자인이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비오네 하우스의 폐점은 그녀의 패션 철학을 이어가는 전통 있는 패션 하우스를 남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고 그녀가 패션계에 남긴 업적에 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비오네 하우스 탄생이후 100년이 지난 2012년 비오네 하우스는 새롭게 부활하였으며, 현재 고가 아쉬케나지(Goga Ashkenazi : 1981~)와 패션계의 철학자이자 지식인이라고 불리우는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van : 1970~)에 의해 패션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컬렉션을 진행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마들렌 비오네의 작품연구를 통하여 그녀의 디자인 철학과 비오네 하우스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표현하며 의상과 조화를 이루는 패션 메이크업을 제안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범위는 마들렌 비오네가 왕성히 활동을 했던 20세기 초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기준으로 전 후 비오네의 삶과 당시 시대적인 배경, 예술사조등을 통하여 비오네의 디자인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선행연구의 문헌적 자료와 시각화 자료 및 국내외의 서적들을 가지고 비오네 활동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패션의 흐름을 고찰하고 비오네의 디자인적 특성을 조형적인 측면과 미적 측면을 구분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연구에서는 비오네의 디자인적 특성이 효과적으로 나타난 작품을 제시하고 의상디자인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패션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고자 한다.

디자인을 분석하고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의 서적 및 패션관련 인터넷 사이트, 패션관련 정보지등을 참고하였으며, 비오네 작품의 색채분석과 일러스트를 통해 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시, 인물을 대상으로 패션 메이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마들렌 비오네의 생애적 배경

2.1 마들렌 비오네의 생애

마들렌 비오네<그림1>는 1876년 7월22일 파리 외곽의 칠레르 오 브와 (Chileurs-aux-Bois)의 중류 가정에서 태어나 12살에 의상실에 견습공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 했고 18살 때 결혼하여 남편을 따라 런던으로 건너갔으나 이혼한 후, 본드 스트리트에 있는 케이트레이 양복점에 취직하여 5년 동안 일하면서 영국의 테일러링 기술을 배웠다.(안삼문. 2004) 당시 영국에서의 경력이 이 후 여성복식에 혁신을 가져오게 될 비오네의 정교한 재단법에 기초가 되었다.

5년 후 24세에 파리로 돌아온 비오네는 당시 파리 패션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칼로 자매(Callot Soeurs)의 메종에서 수석 재봉사로 일하게 된다. 당시 유럽은 아주 어린 소녀들까지도 반드시 코르셋<그림2>을 입어야 했는데 어떤 것은 고래수염이나 강철 살대로 된 것들이었다.(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2005)



<그림1> 마들렌비오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6240



<그림2> 1900년대 코르셋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13

1906년 현대무용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 : 1877~1927)<그림3>의 코르셋을 입지 않고 춤을 춘 공연을 보고 감명을 받은 비오네는 1907년 코르셋을 없앤 혁신적인 의상을 발표하였으나 당시 사회에 큰 반응을 얻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1905년 잔느 파퀀(Jeanne Paquin : 1869~1936)의 ‘하이웨스트(high-waisted)실루엣’을 시작으로 여성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 비오네의 단순하면서 기능적인 디자인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적인 디자인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07년 자끄 두세(Jacques Doucet : 1853~1929)의 메종에서 모델리스트로 경력을 쌓은 비오네는 1912년 드디어 자신의 메종을 열게 된다.(안삼문, 2004)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며 1939년 은퇴할 때까지 비오네는 패션사에 길이 남을 많은 기법들을 개발한다. 마들렌 비오네는 매 시즌마다 변하는 패션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순간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인정신의 소유자였다.

1922년 몽테뉴가 50번지에 자리를 잡은 비오네는 여성의 인체를 살아 움직이는 조형물로 인식하며 예술적 가치와 건축적 요소를 결합시킨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또한 ‘바이어스의 여왕’이라 불리며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바이어스 재단 기법을 개발해 나갔고, 이를 활용해 과도한 장식 없이 몸의 곡선이 드러나는 그리스 스타일의 이브닝드레스를 완성했다. (이재정, 박신미, 2011)

평면재단이 의복을 만드는 기법에 전부이던 당시에 비오네는 4분의 1로 축소된 인체 모형의 목각인형에 옷감을 직접 대어보고 재단<그림4>하며 의상을 제작하는 입체 재단을 개발해낸다. 이것이 현 패션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입체 드레이핑의 시작이었다. 당시의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의 발달로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다양한 옷감들이 개발되면서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과 입체 드레이핑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비오네는 디자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디자인을 불법복제한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 유죄 판결을 얻어내었다. 이 후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위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상

작품에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모델이 착용한 모습을 앞, 뒤, 옆에서 촬영해 두어 불법복제를 차단하였으며, 라이선스 판매도 거부하였다.

1923년 전 러시아 해군 장교이자 구두 제조업자였던 네치와 재혼을 하면서 비오네는 메종의 작업실을 가족주의적인 방식에 따라 조직하면서 여성의 착취가 원칙이었던 그 당시 환경에 더 많은 형평성과 인간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는데 전문가 학교, 부설 식당, 부설 진료소, 유급 출산 휴가 등 근로자를 위한 경영자의 모습을 보였다.(안삼문. 2004)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비오네 하우스는 문을 닫게 된다. 은퇴 이후 비오네는 Rue Saint Roch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바이어스 컷팅 기술과 봉제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1952년 Francios Boucher가 파리 의상 박물관을 건립 할 때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전부와 카피라이터 앨범, 문서, 서적, 800여개의 패턴을 기증하였다.(최진영. 2010)

1975년 한 평생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 헌신하며 1920~1930년대 여성 복식에 바이어스 재단의 혁신을 가져온 비오네는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비오네는 인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재단법과 섬세한 소재의 사용으로 관능적인 효과를 완벽히 창출하며 여성의 우아함을 표현하였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복지제도나 지적재산권보호, 후학들을 위한 기여까지 그녀가 얼마나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디자이너였는지 그녀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림3>이사도라 던컨

<http://justinceo.blog.me/30176975553>



<그림4>비오네의 입체재단

<http://m.blog.daum.net/shinryong/2697253>

2.2 마들렌 비오네의 시대적 배경

패션은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담고 있다. 따라서 마들렌 비오네 활동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복식사적 배경을 통해 비오네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오네 하우스가 처음 생긴 1910년대부터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1920년~1930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910년대는 제1차 세계대전 이 전과 이 후로 극명하게 분리 된다. 전쟁 전인 20세기 초 유럽사회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벨 에포크(bell epoque)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김영옥, 안수경, 조신현. 2009)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 성공으로 인한 유럽의 공산주의 확산은 1910년대를 전쟁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시대로 접어들게 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자 여성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지위는 향상되었다.

또한 이 시기 전쟁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속도화, 대량화, 표준화가 진행되어 생활은 더욱 편리해 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1919년에는 보편성과 기능성, 단순성을 기반으로 한 독일의 조형학교 '바우하우스'가 세워진다. 바우하우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조형예술을 실용화하고자 했던 디자인 학교로 건축가 월터 그로피우스에 의해 예술과 기술의 종합예술지향을 기저로 창립되었다.(김영옥, 안수경, 조신현. 2009) 이는 현대 조형예술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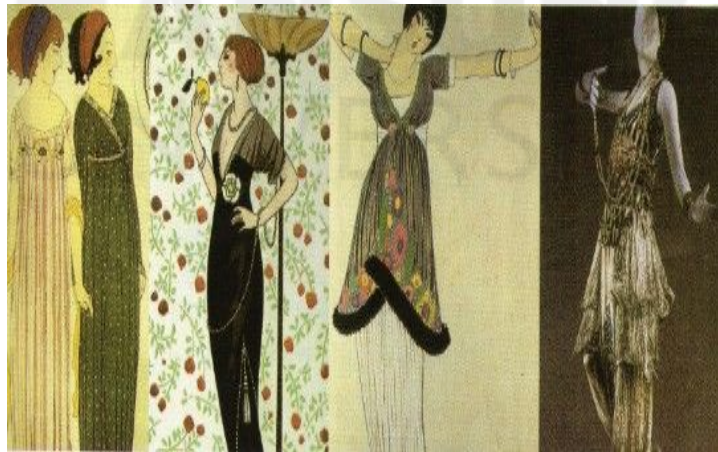
1910년대에는 복식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1900년대까지도 지배적이었던 S자 스타일<그림5>을 변화시킬 상황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당시 상류층의 여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복잡한 구조의 드레스들을 갈아입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빗어야 했고, 혼자서는 입을 수 없는 코르셋의 끈도 조여야 했다. 도저히 하인들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래서 당시는 하인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나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남성들이 하던 일을 노동자 계층

의 여성들이 대신해야 상황이 벌어졌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미 행정업무나 공장일, 사무업무를 보던 노동계층의 여성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류층 여성들은 하인 없이 신속하게 옷을 입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복식의 변화에 또 다른 계기가 된 것은 현대 무용을 개척한 이사도라 던컨이다. 그녀는 인공적인 기교의 발레에 저항하여 1900년대 초에 전통 발레복 대신에 맨발과 맨 다리로 얇은 그리스의 키톤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자연스러운 춤을 소개함으로써 유럽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러시아 발레단 발레루스를 파리에 탄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신미진, 2010)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에서 동양풍의 의상이 등장하는데 이는 동양풍 의상의 유행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몸을 구속하던 코르셋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당시 유행했던 동양풍의 대표적인 의상으로는 호블 스커트, 하렘팬츠, 미나레 스타일<그림6>등을 들 수 있다.



<그림5>S자 스타일 패션 문화를 말하다, p.45.



<그림6>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 호블스커트, 미나레 스타일, 하렘팬츠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p267.

전쟁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복식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테일러드 수트<그림7>와 전쟁의 영향으로 밀리터리 룩<그림8><그림9>이 유행 하였다. 재킷과 플레어스커트로 구성된 테일러드 수트와 더불어 브래지어, 점퍼 블라우스, 딱딱한 실루엣의 노포크 스타일 (norfolk-style)스커트로 착장된 점퍼 수트는 현대화된 여성의 독립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여성복식 스타일이었다.(이재정, 박신미. 2011)



<그림7> 테일러드 수트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p265.



<그림8> 밀리터리 스타일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p266.



<그림9> 밀리터리 스타일
패션, 문화를 말한다. p71.

1910년대 마들렌 비오네는 이사도라 던컨의 공연을 보고 영감을 받아 코르셋이 없는 의상을 발표했으며, 당시 비오네 디자인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고대 그리스 키톤과 같은 유연함과 일본 기모노의 흐르는 듯한 라인으로 동양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표 1> 1910년대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분석

1910년대 디자인		
이 미 지		
	디자인 특성 분석	1910년대 비오네의 디자인은 몸을 구속 하던 코르셋이 사라지고 일본 기모노의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동양풍의 의상과 고대 그리스의 키톤에서 영향을 받은 장방형의 여유로운 실루엣 등의 특징들이 보여진다.
	출처	http://blog.naver.com/amarytak?Redirect=L&logNo=125988170 Icons of Fashion - the 20 th Century. p.62

1920년대는 사회 문화, 과학기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라디오가 가정
에 보급되고 다양한 운송수단이 발전함으로 전 세계는 더욱 가까워 졌다. 또
한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스포츠
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수영복, 승마복, 테니스 복 등 스포츠 웨어<그
림10>,<그림11>가 등장하였다.

여성들은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플래퍼(flapper)<그림12>라는 젊은 여성의 대명사
가 생겨났는데, 이들은 자유연예를 즐기고 개성적이고 활동적인 것을 추
구하여 보이쉬한 스타일의 복장을 하였고, 이들은 당시 신여성의 상징이
었다.(김지희, 정윤희, 황윤정. 2006)

1927년 유성영화의 시작으로 영화산업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할리우드가
급부상 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중문화가 태동하게 되었다. 대중들은 영화
주인공들의 의상과 머리모양, 화장법 등을 모방 하였다.

전쟁 후 일상생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의 하나는 댄스열풍이었는데 이
시기 사람들은 불안한 사회적인 환경과 전쟁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에 대한 해
방감으로 재즈에 열광하였다. 이러한 재즈의 열풍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
로 확산되었다.



<그림10> 장 파투의 테니스의상
100 Ideas that Changed Fashion. p72.



<그림11>수영복 패션쇼, 프랑스 도빌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p53.

1920년대의 복식으로는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변화되는 패션 스타일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짧은 보브 컷에 길이가 짧아진 원피스는 당시 패션 스타일을 주도하는 말괄량이 스타일의 플래퍼(flapper)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스타킹은 패션 리더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으며, 머리를 짧게 자르고 클로슈(cloche)모자나 베레모를 착용했다. 기능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직선적이며 원통형인 의복과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패턴<그림13>이 사용되었으며,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몸의 움직임에 따라 의상의 실루엣이 자유롭게 변하는 ‘몸 중심의 의상’을 선호했다. (이재정, 박신미. 2011)



<그림12>플래퍼룩

<http://www.dongabiz.com>



<그림13>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패턴
패션, 문화를 말한다. p84.

마들렌 비오네의 의상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프린지 장식 드레스나 여러 개의 사각형의 천을 이어서 만든 행거치프 드레스는 자유로운 움직임의 표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한 재단으로 옷감은 인체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더욱 섬세하게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표 2> 1920년대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분석

1920년대 디자인		
이 미 지		
디 자 인 특 성 분 석	1920년대 비오네의 디자인은 자유롭고 활동적으로 변한 여성들의 감성에 맞게 자유로운 움직임의 표현이 가능한 디자인들이 선보였다. 프린지 장식을 사용하거나 사각형의 천을 이용한 행거치프 드레스 등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출 처	Vogue Korea, 2014.05	http://blog.naver.com/amarytak?Redirect=L&logNo=125988170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으로 인해 1930년대는 세계적인 대 공황이라는 우울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또한 1939년에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이 시기 패션은 전체적으로 침체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났고 대규모의 노동운동이 일어났다.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자 직업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성의 복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과는 달리 영화산업은 그 어느 때 보다는 호황을 누렸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도피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산업의 발달은 마를린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와 같은 대중스타들을 탄생시키면서 영화 속 스타들이 입는 의상이나 화장, 소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이는 기성복과 화장품 산업의 발달을 가져왔다. 1939년 세계는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므로 모든 문화와 경제는 정지 상태가 되고 말았다.

1930년대 복식은 여성들의 가정 복귀로 인하여 1920년대 소년스러운 의상에서 우아한 성인모드인 롱 앤 슬림 실루엣<그림14>으로 바뀌었다. 스커트의 길이가 길어지고 허리선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며 1920년대 평평했던 보이시 실루엣 대신 브레이저를 착용하여 가슴선이 살아났다. 점차 어깨가 강조<그림15>되었고 스커트는 바이어스(bias)재단과 플레어(flare)가 사용되어 유연한 실루엣이 형성되었다.(김영옥, 안수경, 조신현. 2009)



<그림14>롱 앤 슬림 실루엣



<그림15>어깨패드 들어간 데이 드레스

http://luxury.design.co.kr/in_magazine/sub.html?at=view&info_id=47383&c_id=00010001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p75.

여성 신체의 곡선이 드러나는 의상을 위해서 부드러운 원단의 사용은 새로운 유행의 특징적 요소가 되었으며 벨벳(velvet), 새틴(satin), 크레이프 드 신(crepe de chine), 툴(tulle)등과 같은 직물이 애용되었다. 이러한 직물들은 착용자의 신체위에서 부드럽게 늘어뜨려져 착용자의 신체 곡선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리의 노출에서 등의 노출로 가는 허리선과 만나는 역삼각형의 V자 뒤태는 할리우드 이브닝드레스<그림16>의 정석이었으며, 경제공황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자수 장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를 직물 프린트<그림17>가 대신하게 되었다.

스포츠 룩이 세분화 되었고 일광욕이 대중화 되면서 수영복 패션이 자주 잡지에 등장했으며, 이 시기 햇빛에 몸을 태우는 것이 남다른 사치를 즐기는 방법이 되었다.



<그림16>V자로 깊게 판 테콜타주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p73.



<그림17>자수를 대신한 문양
[http://blog.naver.com/didnrqhd1?](http://blog.naver.com/didnrqhd1?Redirect=Log&logNo=1120505145)
Redirect=Log&logNo=1120505145

1930년대 비오네는 그리스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는데 그리스 복식의 현실적인 육체와 움직임의 구속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기본으로 몸을 감싸며 만들어진 주름들은 그 공간감과 입체감으로 가려진 몸을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윤진혁, 임은혁. 2011) 또한 삼각형의 무(gusset)를 역삼각형으로 삽입하여 만든 카울 네크라인은 인체와 옷 사이의 공간을 형성하여 노골적인 노출이 아닌 은근한 노출을 통해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 하였다.

<표 3> 1930년대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분석

1930년대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특성 분석	1930년대 비오네의 디자인은 우아해진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바이어스 재단과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한 패턴, 입체 드레이핑으로 여성들의 몸에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실루엣을 보여준다. 또한 피부색과 유사한 색감과 광택 있는 원단의 사용으로 우아한 여성미를 더욱 부각 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출처	Fashion : the 50 most influential fashion designers of all time. p19	세상을 바꾼 50가지 드레스. p13

2.3 마들렌 비오네 작품에 표현된 예술사적 특징

마들렌 비오네가 활동했던 20세기 초에 등장한 예술사조 고찰을 통해 비오네 디자인에 표현된 예술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3.1 아르누보(Art Nouveau)

아르누보 양식은 1890년~1910년경에 유럽에서 유행한 장식 예술로써, 불어의 아르(Art)와 누보(Nouveau, New)의 합성어로 새로운 미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공예와 건축분야에서 번성하였으며 과거의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을 탐닉했던 심미주의적이고 장식적인 경향의 예술운동이었다.(월간미술.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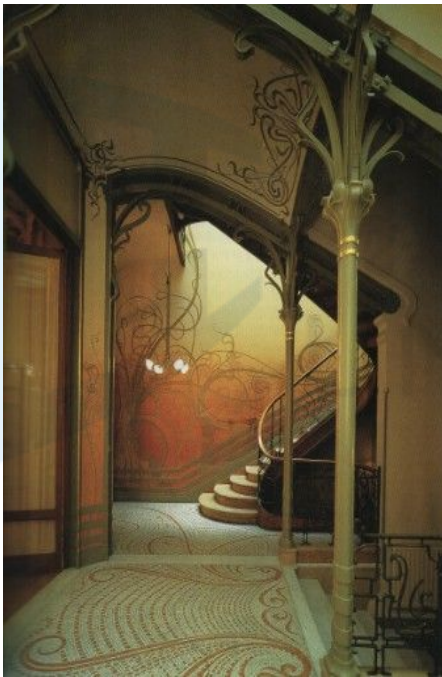
아르누보의 배경을 살펴보면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의 발달로 이루어진 급속한 산업혁명으로 인해 물질적 풍요는 누리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생긴 정신적 혼란과 문화적인 불안은 더해졌고, 대량생산으로 인한 획일적인 제품에 대한반발도 자연의 곡선과 수공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르누보의 등장을 촉진 시켰다.

한편 미술가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공예 기술의 전반적인 쇠퇴에 불만을 느꼈고, 한때는 그 자체로 의미와 기품을 지녔던 장식품이 기계에 의해 값싸고 천박한 싸구려 복제품으로 변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야기된 문제들에 손으로 만든 소박한 것에 대한 기호를 확산 시키게 되었다.(Ernst H. J. Gombrich. 1997) 그들은 각각의 재료가 갖고 있는 기능성과 디자인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신미술’을 갈망하여 아르누보가 탄생하게 되었다.

건축가들은 새로운 종류의 재료와 새로운 형태의 장식에 대해 실험하였다.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인 빅토르오르타(Victor Horta:1861-1947)의 ‘계단’<그림18>은 일본의 건축양식에서 좌우대칭의 원칙을 버리고 곡선의 효과를 주었으며 현대의 요구에 맞는 철제 구조물을 배치하였다. 이 새로운 창안

은 매우 자연스럽게 아르누보와 동일 시 되었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아르누보 양식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꽃과 덩굴, 곤충의 날개 등의 모양을 장식하여 매우 율동적이고 심미적이며 비대칭적 곡선을 주로 사용 하였다. 외젠 그라세(Eugene Grasset:1845-1917)<그림19>는 아르누보의 직접적인 기원이 된 가장 중요한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일본의 선례에 따라 신 고딕 양식과 장식 선에 대한 연구를 결합 시키려 했다.



<그림18>빅토르 오르타의 계단
The Story of Art,p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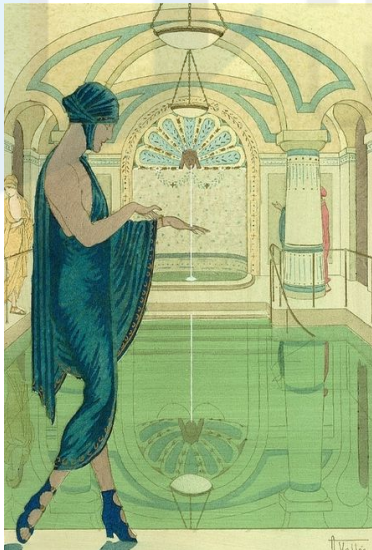


<그림19>외젠 그라세의 봄
LAROUSSE History of Western Art VI, p170

장식적인 아르누보 양식은 꽃문양이나 기하학적인 선에 대한 집착, 유연한 리듬을 특징으로 하며 건물 외관이나 잡지 표지, 포스터, 삽화 등 두께가 아닌 평면에 대한 작업에서 주로 시도됐다. (Nicole Tuffelli. 2004)

패션에 나타난 아르누보 양식의 특징은 <그림20>에서와 같이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표현하며 S자형 실루엣의 형태와 비대칭적인 특징을 나타내었고, 1905년 이 후에는 S자형 실루엣의 초점이 바스트와 hips의 과장이 약해지며 hips은 오히려 협소해지고, <그림21>와 같이 전체적으로 튜블러(tubular)실루엣인 호블 스커트(hobble skirt), 페그 탑 스커트(peg top skirt)와 미나레 스타일(minaret style)이 나타났다.(이정완.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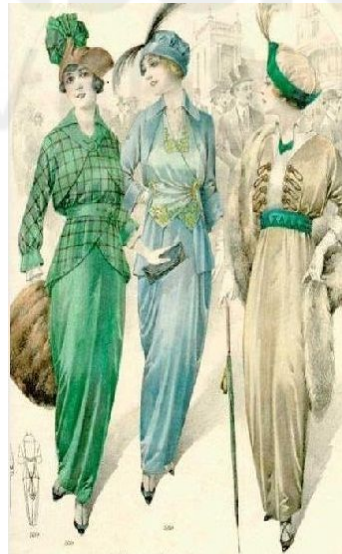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의 색채와 유기적인 생명을 표현하는 곡선의 율동적이고 심미적인 감성, 비대칭적인 요소는 비오네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비오네의 디자인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좀 더 단순화되어진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림20> 아르누보 패션

[http://blog.naver.com/roselina0301?](http://blog.naver.com/roselina0301?Redirect=Log&logNo=8020384950)

[Redirect=Log&logNo=8020384950](http://blog.naver.com/roselina0301?Redirect=Log&logNo=8020384950)



<그림21> 호블, 페그탑스커트

[http://blog.naver.com/innerchild05?](http://blog.naver.com/innerchild05?Redirect=Log&logNo=701444750)

[Redirect=Log&logNo=701444750](http://blog.naver.com/innerchild05?Redirect=Log&logNo=701444750)

2.3.2 아르데코(Art Deco)

아르데코 양식은 1920년대에 나타난 예술양식으로 건축, 가구,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으며,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양식 중 하나이다. 20세기 전반의 장식적이고 대중적인 예술경향 혹은 운동으로 알려진 ‘아르데코’라는 용어는 1925년 파리 국제 박람회(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e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에서 유래되었지만, 1966년 파리의 장식미술관에서 열렸던 1925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회고전이 아르데코 전 ‘Les Art Decos’으로 불리면서 비로써 일반화 되었다.(원명심, 2008)

당시 젊은 건축가들은 건축이 예술(fine art)에 속한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장식을 거부하였으며 건축을 그 목적에 비추어 새롭게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미국에서 가장 잘 나타났으며,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 1896-1959)는 주택에서 중요한 것은 살기 편하게 설계되는 것이지 외관이 아니라는 매우 혁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모든 장식을 없앴으로써 수 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명확한 윤곽과 단순한 형태의 건물들에 익숙해졌다.

아르데코는 1920년대 발전하여 1930년대에 절정에 달하였으며 아르누보(Art Nouveau), 입체파(Cubism), 러시아발레, 바우하우스(Bauhaus) 등의 다양한 원천에 의한 절충주의 및 고전주의 양식으로 대칭과 기하학적 직선이 주요 오브제를 이루고 있다. (김민선, 2011) 현대 건축의 찬반논쟁에 중심이었던 바우하우스는 미술과 기계기술이 19세기처럼 분리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워졌다. 바우하우스의 기본이념은 기능주의(functionalism)라는 용어로 요약 된다. 이는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형태도 아름다워 보인다는 신념이다.(Ernst H. J. Gombrich, 1997)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생산 방식이 기계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대량생산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아르데코 양식의 특징은 입체파의 기하학적인 형태<그림22>와 야수파의 강

렬한 색채의 영향을 받아 단순하고 기능적인 특징과 뚜렷하고 밝은 색상대비를 구사했다.(김민선. 2011) 투탕카멘의 무덤 발견과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으로 인해 이국적인 색채와 금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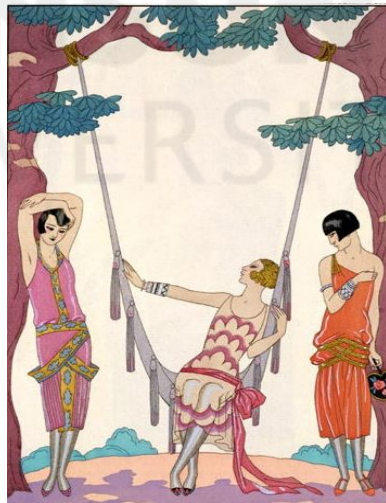
아르데코 패션<그림23>은 인체가 코르셋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시점을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기능주의에 영향으로 기능성과 가속성, 단순화를 추구하는 직선적, 기하학적 특성과 함께 유선형의 매끄러운 선의 특성을 나타낸다. 문양은 기본형태의 반복과 동심원, 지그재그 등이 특징적으로 보여지며 원색과 검은색, 금색과 은색을 사용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발표된 마들렌 비오네의 의상에서도 이와 같은 아르데코의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단순화 되어진 형태와 기하학적이며 반복적인 문양들의 특징과 금색의 색채 사용과 검은색을 사용하여 라인을 강조한 의상들에서 아르데코 양식에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2> 입체파

LAROUSSE History of WesternVI, p63.



<그림23>아르데코

<http://blog.naver.com/bgaggai?Redirect=Log&logNo=50129129830>

2.3.3 초현실주의(Surre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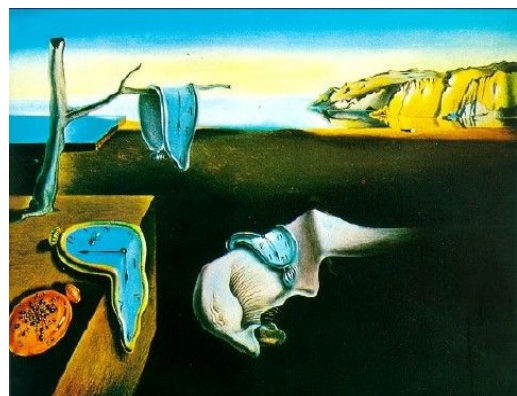
초현실주의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전까지 나타난 예술사조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무의식을 표현하므로 이성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 했던 전위적인 예술표현 경향이다.

당시 젊은 미술가들에 의해 주도된 초현실주의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을 창조하고 그들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었다. 기존 가치 체계에 대한 회의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현대인의 확일적이고 기계적인 생활에 대해 탈피하고자 자동기술법(Automatism), 데페이즈망(Depaysement)등의 표현기법을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내면세계인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거나 상상력을 이성의 우위에 놓음으로써 인간 정신의 해방을 추구하고자하였다.(김희선, 강상모, 백선영. 2011) 초현실주의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화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오랜 기간을 보냈던 스페인 출신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1904-1989)가 있다. 그의 작품<그림24,25> 속에서 그는 현실세계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단편들을 놀랍도록 잘 섞어 놓았고, 그랜드 우드의 풍경화에서 볼 수 있는 치밀한 정확성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 초현실주의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전쟁으로 인해 불안 했던 당시 사람들의 현실도피적인 심리를 대변하였다.



<그림24> 해변가에 나타난 얼굴과
과일그릇의 환영

The Story of Art, p593.



<그림25>기억의 영속성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p280.

초현실주의는 예술사뿐 아니라 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특징으로는 자유로운 무의식 드로잉, 우연의 효과, 환상적인 분위기, 고대와 현대를 넘나들 수 있는 신비로움 등이 있고 사진술과 콜라주 등의 표현기법이 쓰였으며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초현실성과 잠재의식을 반영하는 꿈이나 악몽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충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시키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다.(Ernst H. J. Gombrich. 1997)

초현실주의를 패션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1930년대에 파리에서 활동한 엘사 스키타파렐리(Elsa Schiaparelli: 1890-1973)가 있다. 스키타파렐리는 당시 파리의 고급 의상실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기술 보다는 다른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녀만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구두형상의 모자<그림26>, 바닷가재 그림 드레스<그림27>, 인물과 화병의 착시효과를 극대화한 장콕코의 드로잉이 차용된 이브닝코트 등 초현실주의적인 특징을 살린 많은 작품을 디자인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형상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불가능한 정서나 감정, 사고를 전달하는 초현실주의의 표현 기법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들렌 비오네의 작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26>구두형상의 모자

<http://blog.naver.com/linnco?Redirect=Log&logNo=30143040616>



<그림27>바닷가재 그림 드레스

<http://blog.naver.com/linnco?Redirect=Log&logNo=30143040616>

20세기 초 등장했던 예술 사조를 통해 마들렌 비오네의 작품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비오네의 작품 속에 아르누보 양식과 아르데코양식의 특징의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르누보 양식이 비오네의 디자인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율동적인 유연한 리듬과 심미적이며 비대칭적 곡선의 특징, 또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 꽃과 덩굴, 곤충의 날개 등의 장식적인 표현이 비오네의 디자인의 특징적인 요소로 보여졌다.

<표4> 예술사조에 나타난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 분석 - 아르누보

아르누보 (Art Nouveau)	
율동적인 유연한 리듬과 심미적이며 비대칭적 곡선의 특징, 또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 꽃과 덩굴, 곤충의 날개 등의 장식적인 표현	
	
http://blog.naver.com/wisl96?Redirect=Log&logNo=40187926235	
	
http://blog.naver.com/jongdde?Redirect=Log&logNo=100155790551	http://blog.naver.com/boorook111?Redirect=Log&logNo=150180952503

아르데코 양식이 비오네의 디자인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단순화를 추구하는 직선적, 기하학적 특성과 함께 유선형의 매끄러운 선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문양은 기본형태의 반복과 동심원, 지그재그 등이 특징적으로 보여지며 원색과 검은색, 금색과 은색을 사용한 점 등이 아르데코 양식에 영향을 받은 비오네의 디자인적 특징으로 보여 졌다.

<표5> 예술사조에 나타난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 분석 - 아르데코

아르데코(Art Deco)	
단순화를 추구하는 직선적, 기하학적 특성과 함께 유선형의 매끄러운 선, 기본 형태의 반복과 동심원, 지그재그 등의 문양 적 특징 표현	
	
http://blog.naver.com/jonelab?Redirect=Log&logNo=80193552845	http://blog.naver.com/lordsgrace?Redirect=Log&logNo=166074892
	
http://cafe.naver.com/ownstyle2/545	http://blog.naver.com/boorook111?Redirect=Log&logNo=150180952503

Ⅲ.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인체 중심의 입체적인 구성과 순수성을 지향하며 여성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표현해낸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적 특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비오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형태, 소재, 색채, 재단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3.1. 형태

형태는 복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눈에 띄는 요소이다. 일반적인 조형요소로서의 형태는 부피와 면적이 있는 모든 평면적인 것과 입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요소이지만, 패션 디자인에서의 형태(shape)는 인체에 의복을 착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외관적인 실루엣(silhouette)과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테일(detail), 트리밍(trimm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성지, 김이영. 2008)

비오네의 디자인의 형태적인 측면을 실루엣과 장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1. 실루엣 (silhouette)

실루엣의 의미는 반면(半面)영상으로, 복식에서는 의복의 총합 된 부분 중에서 착장 상태에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의복의 외형선, 즉 의복의 전체적인 윤곽선을 의미한다.(장성은, 이종숙. 2008) 실루엣은 그 시대의 미적 가치관이나 경제, 문화, 예술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유행의 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렇듯 실루엣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오네 디자인에서 나타난 실루엣의 특징들을 시대적

인 변화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비오네의 활동 초기였던 1910년대에는 원통형의 여유로운 튜블러(tubular) 실루엣의 형태로 보여 진다. 초기에는<그림28>와 같이 밑으로 갈수록 스커트의 폭이 좁아지며, 스커트의 단이 이중으로 생기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스커트의 햄 라인은 앞은 짧고 뒤쪽은 길어진 비대칭적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넥라인은 팔과 등을 노출 시키는 홀터 넥라인으로 앞부분은 V자 형태를 이루고 있어 기모노의 흐르는 듯 한 실루엣을 연상시키는 동양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10년대 후반부터는 <그림29>에서처럼 그리스의 키톤과 같은 유연한 실루엣의 형태로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H라인 실루엣이며 허리부분을 벨트로 연출 하였다. 사각형의 천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행거치프 드레스의 형태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드레이프지는 카울 넥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28>동양풍의 드레스
Icon of Fashion , p63



<그림29>그리스 키톤풍의 드레스

[http://blog.naver.com/boorook111?](http://blog.naver.com/boorook111?Redirect=Log&logNo=150180952503)

[Redirect=Log&logNo=150180952503](http://blog.naver.com/boorook111?Redirect=Log&logNo=150180952503)

1920년대로 들어가면서 부터는<그림30>과 같이 사각형의 천을 이용하여 더욱 자유로운 움직임 연출한 스타일의 드레스들이 보여진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장방형의 H라인 실루엣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드레스의 길이는 짧아진 형태이다. 넥라인은 좀 더 단순화 되어진 형태로 가로로 긴 형태의 보트(boat) 넥라인이나 V넥라인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1930년대부터는 성인풍의 우아한 롱 앤 슬림 실루엣이 보여 지는데 다트대신 삼각형이나 사분원의 재단을 이용하여 인체에 밀착 시켜 여성미를 더욱 강조한 형태이다. <그림31>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드레스의 길이는 길어 졌으며 바이어스 재단으로 물결치는 햄 라인을 형성한다. 당시 비오네의 디자인이 그리스의 복식에서 영향을 받아 디자인 되었으며 이 특징들이 엠파이어 실루엣으로 보여진다. 넥라인은 홀터 넥라인과 카울 넥라인으로 여성미가 돋보이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30>역동성을 강조한 드레스
<http://cafe.naver.com/ownstyle2/545>



<그림31>롱 앤 슬림 실루엣 드레스
<http://blog.naver.com/qnnp486?Redirect=Log&logNo=60051375720>

3.1.2. 장식

비오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중 장식적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옷의 형태를 마무리 하는 용도로 사용된 장식과 표면을 꾸미는 용도의 장식으로 볼 수 있다. 옷의 형태를 마무리 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 장식은 움직임에 자유로움을 표현해 주는 프린지(fringe) 장식<그림 32>과 옷을 몸에 밀착시켜주는 다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주름장식<그림 33>, 바이어스 재단으로 물결 같은 모양이 생기게 하는 플라운스(flounce), 원단자체로 부피감을 주는 러플(ruffle)이나 프릴(frill) 사용되었다.



<그림32>프린지장식

Vogue website, 2014.05



<그림33> 주름장식

<http://blog.naver.com/qnnp486?Redirect>

Log&logNo=60051375720

표면 장식으로는 비오네 로즈(Vionnet Rose)<그림34>라고 불리우는 장미 장식이 로맨틱한 무드를 형성하며 1920년대부터 1930년대 까지 비오네의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었다. 비오네 로즈는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의 바이어스 끈을 이용한 것으로 로맨틱한 이미지와 더불어 정교하고 입체적인 표면 효과까지 주었다. 리본장식<그림35>과 별 무늬, 레이스 등도 사용 되었으며 이러한 무늬들은 반복적인 형태도 표현되었다. 또한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동심원, 지그재그, 직선과 유선형의 무늬들이 사용되었으며 포도넝쿨, 꽃무늬, 나비 등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무늬들도 단순화 되어진 형태로 보여 졌다.



<그림34>비오네로즈

<http://blog.naver.com/boorook111?>

Redirect=Log&logNo=150180952503



<그림35>리본장식

<http://blog.naver.com/amarytak/125988170>

3.2. 소재

소재(textile)는 패션제품의 근본이 되는 재료로서, 섬유 및 동물의 가죽, 털 등 천연 섬유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조 또는 합성섬유 등이 있다.(한성지, 김이영. 2008)

비오네가 활동하던 당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해 새로운 소재들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체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비오네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 하였는데, 크레이데 신(crepe de chine), 쉬폰, 저지 등으로 자연스럽게 미세한 주름과 길게 늘어지는 특징을 나타 내었다. 또 광택이 있는 실크나 새틴 등을 사용하여 여성의 인체를 매끄럽게 표현했으며, 광택이 있는 부분과 광택이 없는 뒷부분을 함께 사용하여 빛과 조명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었다. 벨벳의 특성인 결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입체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표면의 질감을 극대화 시켰으며, 투명한 소재와 불투명한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신체의 윤곽선을 은밀히 암시하는 관능미를 표현 하였다.

3.3. 색채

색은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색의 적용에 따라 감성적인 이미지가 달라진다.

마들렌 비오네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색상은 부드럽고 옅은 색상으로 채도는 낮고 명도는 높은 파스텔 계열의 부드럽고 내추럴한 컬러를 선호 하였다. 특히 피부와 유사한 색상<그림36>들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인체와 하나가 되는 듯한 착시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색상들은 광택이 있는 소재로 표현되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명암으로 단색의 옅은 컬러가 주는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우아한 여성의 인체를 표현해 주었다. <그림37>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라데이션 효과도 비오네의 의상에서 보여 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그라데이션 기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유연한 느낌이 표현 되었다. 또한 비오네의 작품에서 골드 색상과 오렌지가 가미된 레드색상이 특징적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1922년 투탕카멘의 묘 발견으로 당시 유럽사회에 이집트 열풍의 영향으로 보여 진다.



<그림36>피부색과 유사한 색상
<http://blog.naver.com/amarytak/1259881>



<그림37> 그라데이션
[http://blog.naver.com/qnnp486?](http://blog.naver.com/qnnp486?Redirect=Log&logNo=60051375720)
[Redirect=Log&logNo=60051375720](http://blog.naver.com/qnnp486?Redirect=Log&logNo=60051375720)

비오네는 배색의 효과보다는 의상 전체를 한가지의 색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그녀의 디자인의 특징인 단순함과 순수성이 더욱 잘 표현 되었다. <그림38>과 같이 그녀의 작품 특유의 흐르는 듯한 우아한 실루엣에는 내추럴한 컬러가 사용되었으며 <그림39> 과같이 문양이 있는 의상이나, 라인을 강조하는 모던한 의상에는 블랙으로 강조해 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마들렌 비오네는 감성과 이미지에 따라 색채를 달리 사용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38>내추럴 컬러

[http://blog.naver.com/boorook111?](http://blog.naver.com/boorook111?Redirect=Log&logNo=150180952503)
Redirect=Log&logNo=150180952503



<그림39>블랙라인

<http://blog.naver.com/amarytak/125988170>

3.4. 재단

마들렌 비오네의 가장 큰 업적은 기하학적인 재단방법과, 바이어스 커팅, 그리고 입체 드레이핑 이라고 할 수 있다.

마들렌 비오네는 1920년대에 여성의 부드러운 실루엣을 잘 표현해 줄 바이어스 커팅(bias cutting)을 개발하게 된다. 바이어스 커팅은 직물을 직조 방향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재단하여 신축성이 없는 소재라도 경사와 위사의 중간부분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유연성을 이용한 재단방법이다. 이로 인해 수직 방향 재단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유연성과 신축성을 더하게 됐다. 바이어스 재단은 원래 칼라나 소매 등 가장자리에 사용되었던 것이나 이를 의상 전체에 적용시킨 것은 비오네에 의해서였다. 인체의 자연스러운 미를 중요시 했던 비오네는 이로 인해 몸에 맞추어 늘어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20세기 초에 나타난 예술에 기하학적인 특성을 패션에 적용 시킨 마들렌 비오네는 새로운 재단법으로 인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냈다. 비오네의 기하학적인 방법은 사각형, 삼각형, 원형에 의한 디자인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오랜 훈련으로 얻은 독특한 기술로 이는 작품을 모드로 이해하기 보다는 건축물처럼 인식하여 인체와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가장 엄격한 기술력으로 완성시켰다.(최진영, 조규화. 2010)

사각형을 이용한 재단은 주로 장방형의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 티어드 바이어스(tiered bias)재단이나 손수건의 중심을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을 때 생기는 모양의 햄 라인을 형성하는 행거치프 포인트(handkerchief points)를 사용하여 스커트 단이 아래로 길게 늘어지도록 표현하였고, 이는 인체의 동작에 따라 새로운 입체감이 형성되는 매우 현대적인 조형감을 보여주었다.(최진영. 2006) 1920년대에 제작된 비오네의 작품들은 <그림40> 사각형의 조각들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형성되는 불규칙적인 햄 라인과 옷감이 겹쳐지면서 형성되는 3차원적인 입체감이 보여진다. 또한 카울 네크라인을 형성하여 부드럽게 드레이프지는 여성미와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실루엣의 자유로움이 표현되었다.

비오네는 또한 원형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곡선의 드레스를 디자인 하였다. 원을 4등분 하거나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도 하고 원형 그대로 사용하면서 래글런 소매나 셔클러 스커트와 같이 부드럽게 물결치는 듯한 형태를 만들어 냈다. <그림41>에서와 같이 원형을 이용한 디자인들은 아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면서 늘어짐과 동시에 드레이프지는 특징들을 통해 우아한 미적 가치를 구현해 냈음을 볼 수 있다. 흐르는 듯이 늘어지는 특성 때문에 원단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상을 만들기 전에 추를 매달아 변형을 준 후에 제작하였다.



<그림40> 사각형 재단

<http://blog.naver.com/amarytak/125988170>



<그림41> 원형 재단

<http://blog.naver.com/boorook111?>

Redirect=Log&logNo=150180952503

비오네의 기학학적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삼각형에 의한 디자인은 다트와 대체선 대신에 삼각형의 천을 추가하여 평면을 입체로 변화 시키는 구성기법이 형성되므로 해부학적 커트(anatomical)라고도 한다.(신미진. 2010) 삼각형의 조각들은 의상을 더욱 인체에 밀착시키며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냈다. <그림42>과 같이 삼각형의 조각들은 인체의 굴곡에 흐름을 따라 밀착되어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표출 하였다.

비오네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 또 하나가 입체 드레이핑이다. 비오네는 스케치북에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대신 4분의 1로 축소된 나무인형에 옷감을 직접 대어가며 디자인하였다. 나무인형<그림43>을 인체로 여기며 형태와 볼륨 그리고 라인들을 만들어 갔고, 그로 인해 인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며 몸에 편안한 의상을 만들어 냈다. 입체 재단에 의한 의상에서는 평면재단에서는 볼 수 없는 우아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림42> 삼각형 재단

[http://blog.naver.com/boorook111?](http://blog.naver.com/boorook111?Redirect=Log&logNo=150180952503)

[Redirect=Log&logNo=150180952503](http://blog.naver.com/boorook111?Redirect=Log&logNo=150180952503)



<그림43> 입체재단

<http://blog.naver.com/amarytak/125988170>

IV.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에 표현된 미적 특성

앞장에서 살펴본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적 특성을 실루엣, 색채, 소재 등 디자인 요소의 전체적인 조합을 통해 표현되는 이미지로 분류하여 비오네가 표현하고자 하였던 여성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현대적 감각의 절제미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은 그녀가 활동했던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함께 당시 등장했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코르셋이나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한 단순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 지향적이지 않은 새로운 취향의 디자인에 열광하는 시기였음을 말해준다. 1919년 바우하우스의 설립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속화 시켜주었다.

마들렌 비오네는 이 전 시대에 있던 불필요하고 여성의 인체를 구속시키던 장치들을 제거하고 인위적인 라인이 아닌 인체의 자연스러운 라인을 별다른 장식 없이 표현하였다.

또한 색상 사용에서도 화려한 배색이나 무늬를 사용하기 보다는 무늬가 없는 단색의 의상들을 선보였으며, 옷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용하여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명암으로 단색의 의상의 단조로움을 탈피하였다.

비오네 디자인에서 나타난 현대적인 감각의 절제미는 간결함과 단순함을 지향하는 패션 테마인 모던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는데, <그림44>의 블랙 드레스는 비치는 시어한 소재에 블랙의 라인을 강조하여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블랙의 라인이 주는 단순미를 표현 하였고, 1920년대 등장했던 비오네의 의상들은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아지고 라인이 여유 있는 직선적인 실루엣<그림45>으로 당시 여성들의 활동에 적합한 기능성을 갖춘 모더니즘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모던한 디자인에 활력을 넣어주는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오간자, 새틴, 크레이프, 머슬린 드 스와(mousseline de soie), 샤르피즈(charmeuse)등의 섬세한 소재와 빛과의 조화로 인해 단순한 의상에 미묘한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최진영. 2010)



<그림44> 모던한 이미지

<http://cafe.naver.com/ownstyle2/545>

<그림45>직선적인 실루엣

<http://cafe.naver.com/ownstyle2/545>

4.2. 낭만적 감각의 로맨틱한 여성미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로맨틱한 프린세스 실루엣이 특징적으로 보여 진다. 당시 사회는 1929년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 공황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심리

적 불안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현실 도피하고자 낭만주의적인 요소들을 찾기 시작했고,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요소는 1930년대 후반까지 유행 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는 로맨틱한 이미지로 표현 되었다. 로맨틱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성적인 표현을 기본으로 하는 패션 이미지로 여성스러운 부드러움과 우아함, 환상적이고 낭만적이며 소녀적인 느낌의 테마로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다. 비오네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로맨틱한 이미지는 앞에서 말한 여성스러운 프린세스 라인과 부드러운 이미지의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비오네가 주로 사용했던 장미 문양은 비오네의 디자인을 더욱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 장미 문양은 입체적인 기법으로 비오네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비오네 로즈로 불리웠다.

비오네는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새틴이나 벨벳, 레이스, 툴 등을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환상적인 여성미를 표현 하였으며, 특히 193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크리놀린 풍의 드레스<그림46>들은 이러한 소재로 인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 시킬 수 있었다.

4.3. 우아한 여성의 관능미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에서 표현하는 여성의 아름다움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성숙한 여성의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 아름다움이다. 특히 여성의 인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요란하지 않은 단순함으로 여성의 우아함을 은밀히 강조하는 고도의 계산된 디자인들로 표현되었다.

1930년대로 들어가면서 성숙한 여성미의 부활로 인해 톱앤 슬림 실루엣이 유행을 하였고,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등장한 비오네의 디자인은 고대 그리스의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들로 자연스럽게 트레이프지는 것들이었다. 원래 고대 그리스 시대에 복식에서 보여지는 트레이퍼리의 표현은 인체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러운 미를 빚어내고 부드러운 천에 의해 율동 감을 창조해내며 옷감을 걸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진영, 조규화. 2010) 비오네는 이러한 드레이퍼리에 매료되어 고대 그리스 풍의 우아함을 강조한 의상<그림47>들을 디자인 하였다. 주름, 매듭, 꼬기, 묶기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 하였으며, 광택 있는 소재의 사용과 신체를 밀착시키는 기하학적인 채단, 흐르는 듯한 유연한 실루엣을 만드는 바이어스커팅으로 성숙하고 우아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숙한 여성미는 뒤통의 노출이나 카울 네크라인으로 인해 생기는 옷감과 인체의 공간이나 광택 있는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으로 여성의 신체를 은근히 드러내며 우아한 여성의 관능미를 보여주었다.



<그림46>로맨틱한 이미지

<http://blog.naver.com/qnnp486?Redirect=Log&logNo=60051375720>



<그림47>엘레강스한 이미지

<http://blog.naver.com/amarytak/125988170>

V.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을 응용한 패션쇼 메이크업 제안

5.1. 작품제작의도

지금까지 마들렌 비오네의 작품을 시대별 복식사적인 관점과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비오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이 패션 이미지 분류에 따라 모던한 이미지, 로맨틱한 이미지, 엘레강스 한 이미지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오네는 동시대 사람들의 미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복식변화를 수용, 유행을 선도하였고, 또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인체를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미를 표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오네 하우스는 2012년부터 다시 패션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비오네의 작품세계와 현 시대의 감성을 균형감 있게 결합시킨 패션 메이크업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비오네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메이크업 제안에 있어 먼저 디자인의 특성이 효과적으로 보여 지는 작품을 선정 하고, 각 이미지를 통한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100여 년 전의 비오네의 작품을 모티브로 삼아 메이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패션쇼 메이크업은 현시대의 트렌드가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한다. 그러나 트렌드는 한시적이라는 제한점이 있어 연구 시점의 트렌드를 적용하기에는 시늬가 지나고 나면 연구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패션하우스들의 경우 매 시즌 트렌드를 적용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와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자는 마들렌 비오네의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비오네 하우스만의 정체성, 즉 이론적 배경이 된 시대 변화에 따른 디자인 변화의 특징과 비오네 디자인만의 조형적인 특징들을 기준으로 하여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5.2. 모던한 이미지의 작품을 응용한 메이크업 제안

1920년대를 전후로 하여 비오네의 디자인에 나타났던 단순함과 간결함을 나타내는 모던한 이미지의 작품들을 모티브로 기하학적인 도형들과 간결하고 선명한 라인을 강조한 패션쇼 메이크업을 표현하고자 한다.

5.2.1 블랙 시스루 드레스(Black see through dress)

1935년도에 발표된 이 드레스는 블랙의 컬러에 시스루한 소재를 이용하여 건축적인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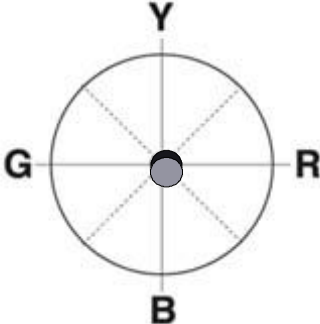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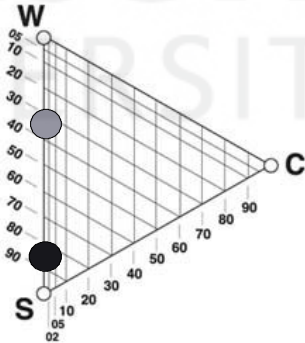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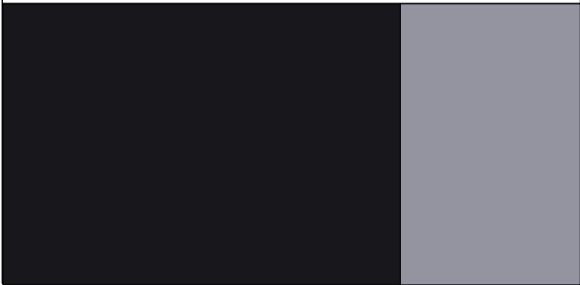
1930년대 후반 낭만주의적인 경향이 유행하면서 등장한 이 의상은 과거 크리놀린 풍의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철심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인체를 구속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조합을 통해 크리놀린 풍의 의상을 모던한 느낌으로 표현해 내었다. 블랙 컬러를 배색 없이 단색으로 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강조되어 현대적인 단순미가 표현 되었다. 비오네는 이 의상에서 크리놀린 드레스의 특징인 철심이 있는 코르셋 파팅게일(farthingle) 대신 옷감의 끝단을 바이어스 천으로 감싸 정리하는 파이핑(piping)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통해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조형미를 보여주었다.

또한 비오네는 불필요한 장식의 배재와 단색의 라인이 강조된 의상이 가질 수 있는 단조로움을 시스루 한 소재의 사용으로 빛에 따라 인체가 투영되는 느낌을 통해 여성미를 부여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블랙 시스루 드레스를 모티브로 하여 모던한 분위기의 이미지 맵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블랙 시스루 드레스의 부드러우면서도 건축적인 특징을 살려 라인을 강조한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6>,<표7>,<표8>,<표9>는 연구자가 본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도표 및 작품이다.

<표6> 작품1 : 블랙 홀 - 모티브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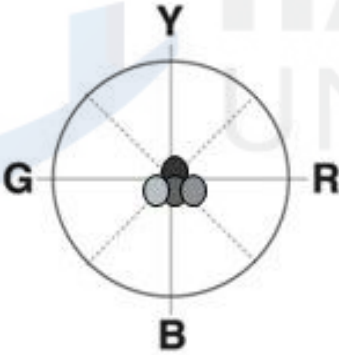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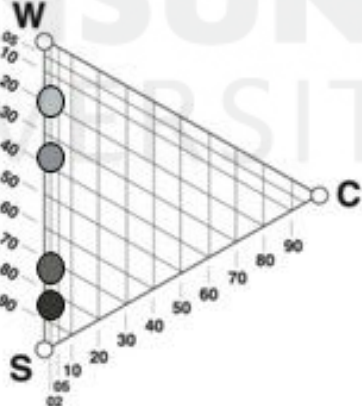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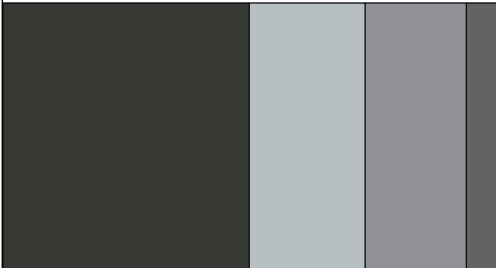
모티브 작품	NCS 색상분포
http://blog.naver.com/boorook111?Redirect=Log&logNo=150180952503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 S 8502-B ● S 3502-B

<표7> 작품1 : 블랙 홀- 이미지 맵



비오네의 블랙 시스루 드레스에서 특징적으로 보여 지는 모던한 느낌을 살려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간결한 라인의 현대적인 단순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모티브가 된 블랙 시스루 드레스의 색상인 블랙과 화이트의 결합을 통해 강렬한 대비가 주는 현대적인 세련된 감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미지 맵에서 표현한 현대적인 라인들을 모티브로 곡선의 라인이 강조된 메이크업을 제안 하고자 한다.

<표8> 작품1 : 블랙 홀 - 일러스트

일러스트	M-up 디자인	
	특징	미래지향적인 단순미를 표현
	피부 표현	유분기 없이 매트 한 느낌으로 피부를 표현하고 모델이 가진 피부보다 한 톤 밝게 하여 창백하게 표현
	눈	자연스러운 형태의 눈썹으로 강조 되지 않게 표현 새도우의 컬러가 드러나지 않게 피부 톤과 유사한 색상으로 가볍게 표현하고 블랙으로 아이라인을 강조 곡선의 라인으로 눈 두덩이에서 눈썹을 타고 오르는 느낌으로 표현
	립	투명 립 글로즈로 가볍게 표현
NCS 색상분포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 S 8500-N ● S 2002-B ● S 3502-B ● S 7500-N	

<표9> 작품1 :블랙 홀- 작품사진



5.2.2. 바이어스 컷 드레스

비오네의 이 작품은 기하학적인 도형과 바이어스 재단을 이용하여 다트 없이도 몸에 흐르는 듯 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하는 디자인으로 현대 의상 디자인에도 끊임없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이다. 천을 삼각형, 사각형, 사분원등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조각으로 나누어 몸에 굴곡에 맞게 천이 인체에 맞추어가는 속성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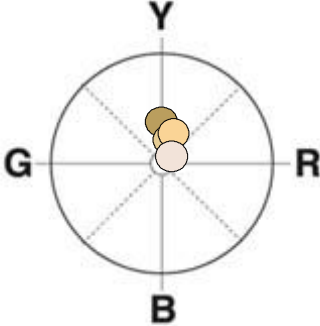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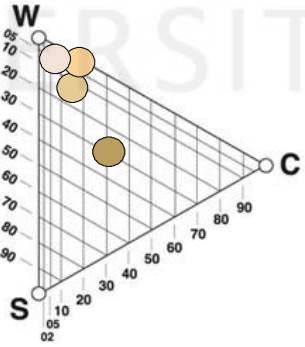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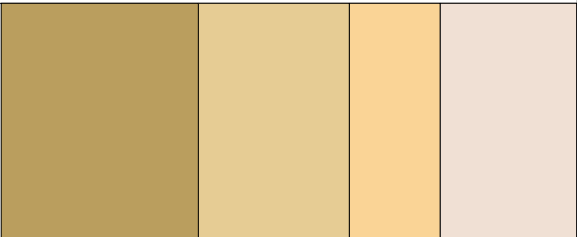
전체적인 실루엣은 슬림한 일자형으로 일체의 장식 없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색상은 옐로우 계열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표현되었으며, 빛에 따라 달라지는 은은한 광택과 앞은 짧고 뒤는 긴 형태의 불규칙적인 햄 라인을 통해 단순함을 가진 모던한 이미지 속에서도 비오네의 흐르는 듯한 유연함이 함께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오네 디자인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어스 재단과 기하학적인 도형은 특히 삼각형의 도형을 통해 주로 표현되었으며, 삼각형이 모여 사각형, 마름모등을 이루며 또 다른 형태를 이루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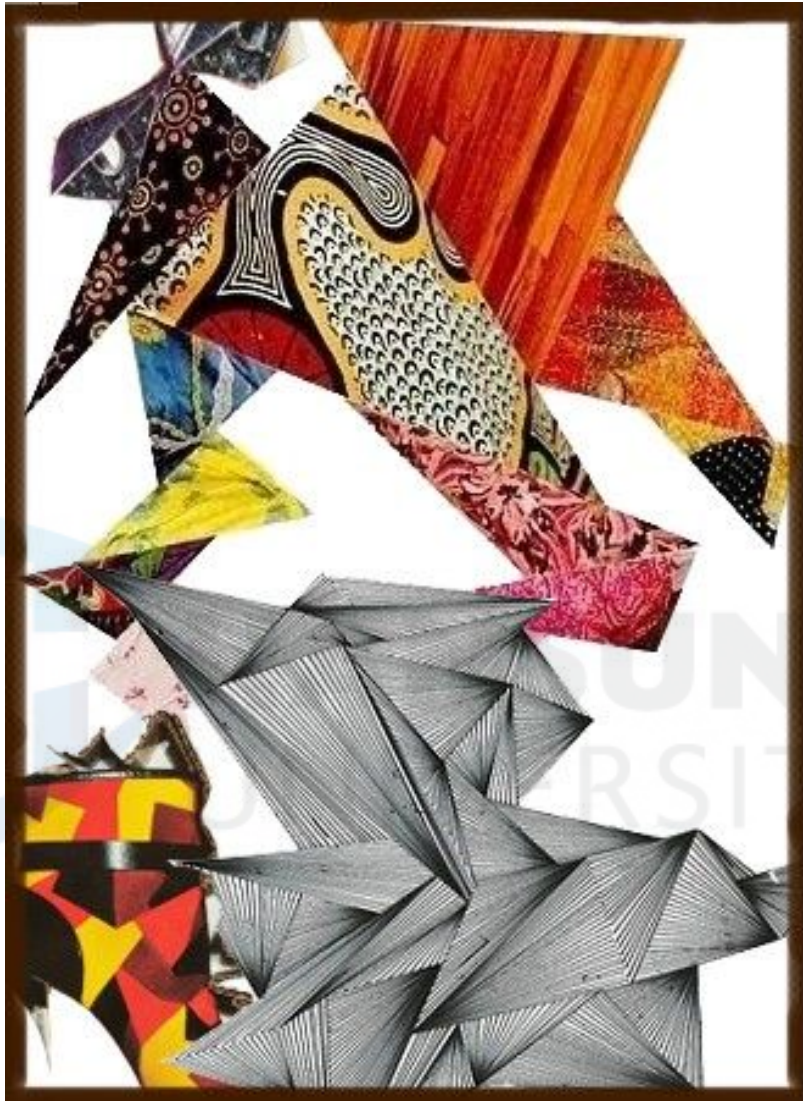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자는 조각의 천들이 모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며 인체의 유연함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메이크업 디자인의 모티브로 삼아 비오네가 디자인의 요소로 사용한 기하학적인 도형들 중 삼각형을 모티브로 옐로우 계열의 따뜻한 색상들을 이용하여 모던 하면서도 색상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미지 맵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삼각형의 도형을 응용한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10>,<표11>,<표12>,<표13>은 연구자가 본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도표 및 작품이다.

<표10> 작품2 : 계획된 우연(Planned Contingency)- 모티브 디자인

모티브 작품	NCS 색상분포
http://blog.naver.com/boorook111?Redirect=Log&logNo=150180952503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S 3030-Y  S 1515-Y20R  S 0520-Y30R  S 1005-Y90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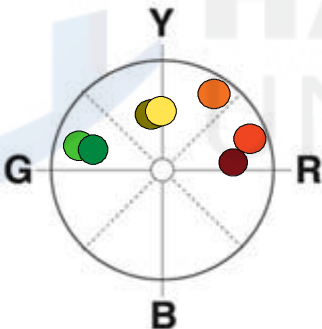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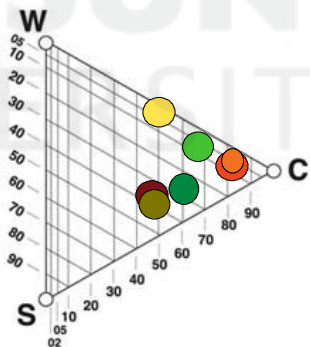
<표11> 작품2 : 계획된 우연(Planned Contingency) - 이미지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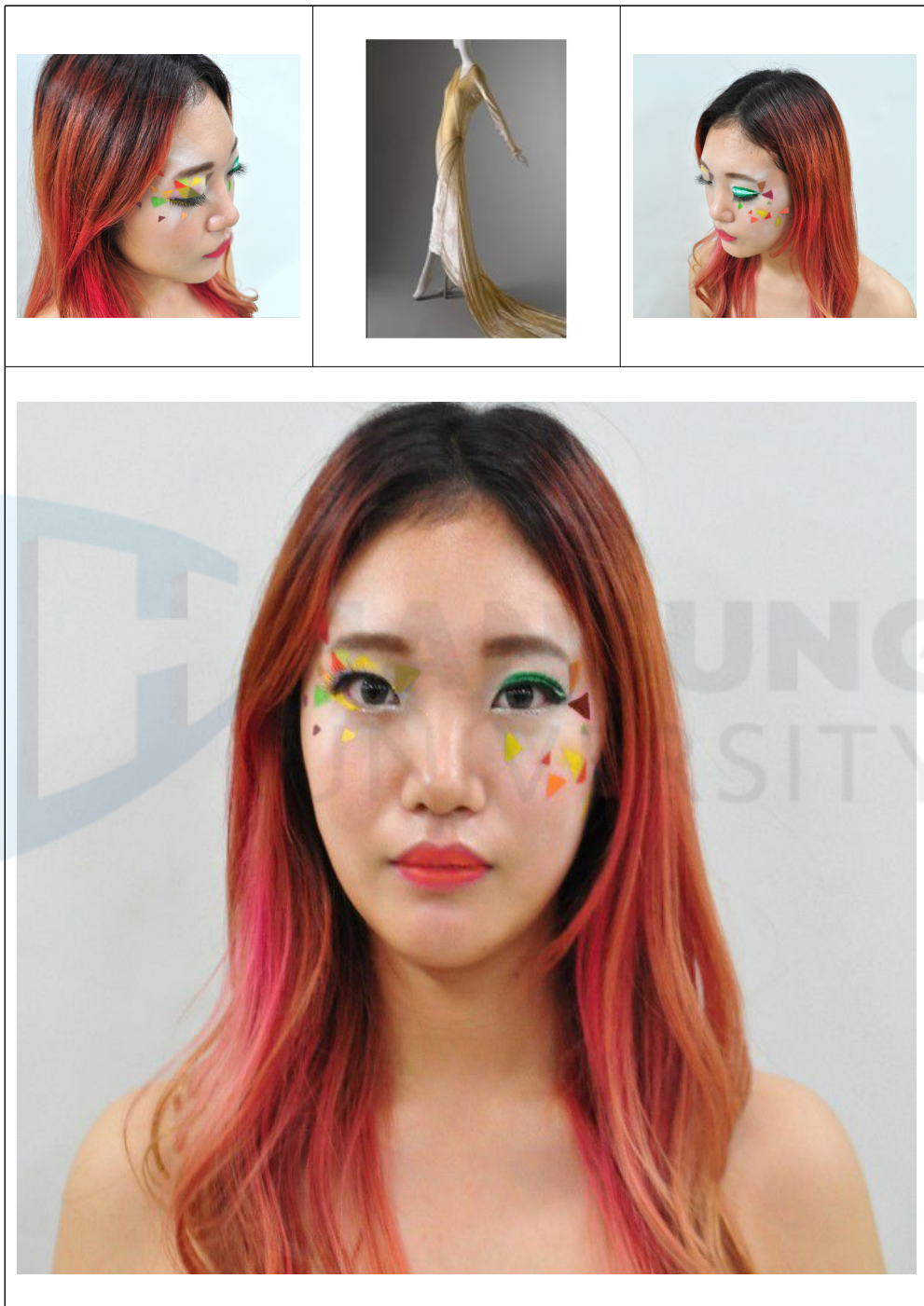
기하학적인 도형들의 결합을 통해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비오네 디자인을 삼각형 조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하학적인 도형들의 결합과 불규칙적인 햄 라인 등은 현대의 상 디자인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들을 구축하고 있다.

바이어스 컷 드레스에서 사용한 옐로우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이미지에 비오네 특유의 부드러움을 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오네가 도형들 중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삼각형을 이용하여 메이크업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표12> 작품2 : 계획된 우연(Planned Contingency) - 일러스트

일러스트	M-up 디자인	
	특징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한 메이크업
	피부 표현	내추럴한 베이스 메이크업 후 도형의 색감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화이트 세도우로 도형이 입혀질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
	눈	눈썹은 내추럴하게 표현하고 옐로우계열을 중심으로 한 컬러로 눈 주변을 삼각형 도형으로 장식 그린컬러의 아이라인을 화이트 컬러와 매치하여 이중라인으로 표현
	립	핑크컬러로 글로시하게 표현
NCS 색상분포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 S 1080-Y40R ● S 3065-G10Y ● S 1080-Y70R ● S 4050-G80Y ● S 0550-Y ● S 4550-Y90R ● S 1070-G20Y	

<표13> 작품2 : 계획된 우연(Planned Contingency) - 작품사진



5.2.3. 아르데코 문양 드레스

1924년도에 발표된 비오네의 이 작품은 아르데코 양식의 특징적인 요소인 직선과 유기적인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표현되고 있다.

넥라인은 스퀘어로 사각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스커트의 끝자락인 햄 라인은 물결이 치는 듯한 유연한 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문양 또한 넥라인에서 떨어지는 역삼각형의 날카로운 직선의 형태를 보이며, 드레스의 끝 자락은 햄 라인을 따라 곡선의 형태가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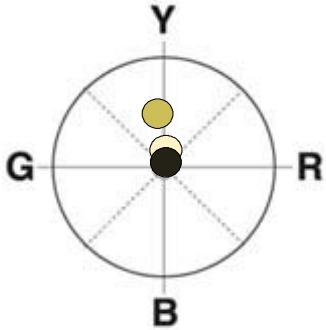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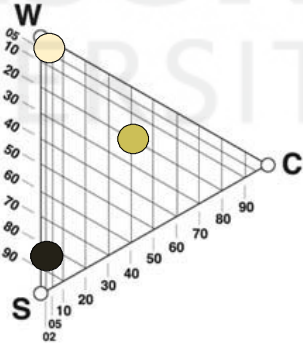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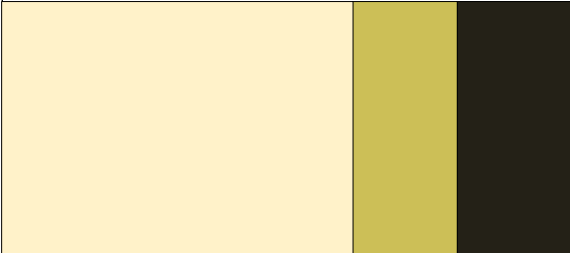
이러한 문양들은 반복적인 형태를 보이며, 당시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컬러는 베이지와 블랙, 골드를 사용하였는데, 단색의 드레스에 라인을 강조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는 불필요한 장식 없이 선의 형태만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를 통해 곡선의 여성스러움이 더해진 모더니즘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의 모던한 감각을 이미지 맵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를 모티브로 하여 사람의 눈의 곡선과 대조를 이루는 직선적인 문양을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로 사용하고 블랙과 옐로우, 골드 색상의 사용으로 아르데코 문양의 드레스와 조화를 이루는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14>,<표15>,<표16>,<표17>은 연구자가 본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도표 및 작품이다.

<표14> 작품3 : 공존 - 모티브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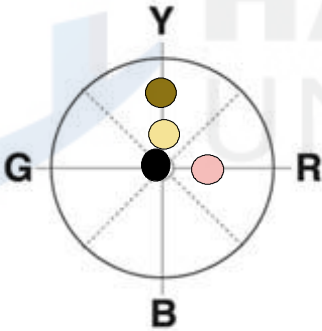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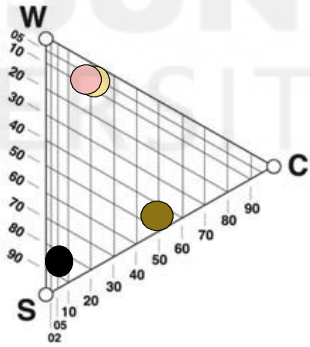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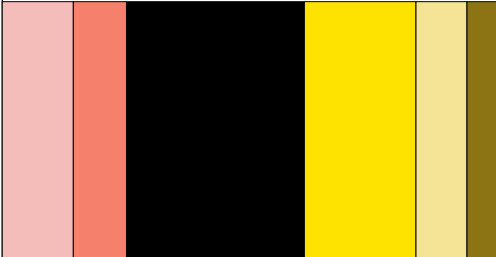
모티브 작품	NCS 색상분포
http://cafe.naver.com/ownstyle2/545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 S 8502-Y ● S 0507-Y20R ● S 2040-G90Y

<표15> 작품3 : 공존 - 이미지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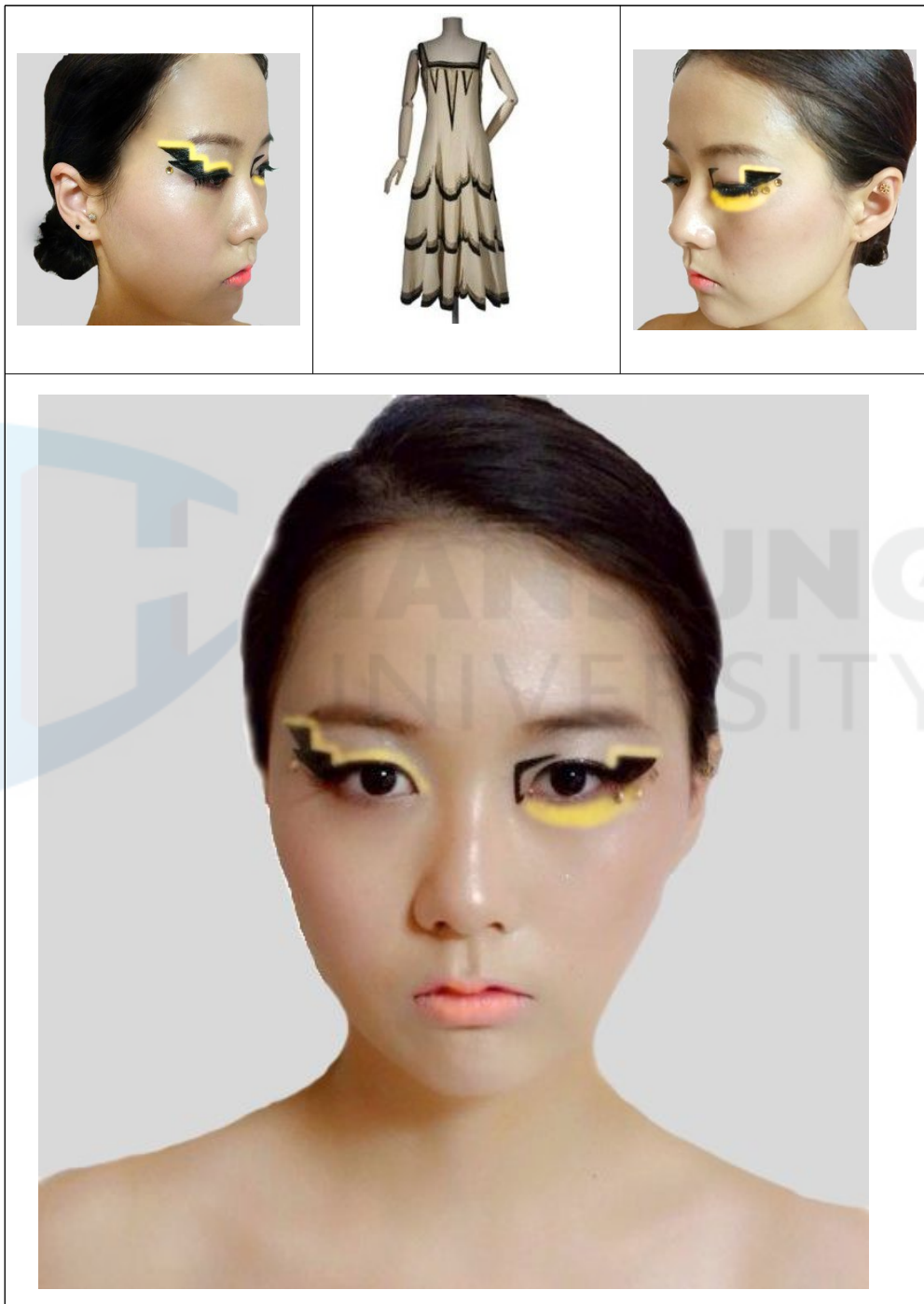


비오네의 디자인에 영향을 준 아르데코 양식의 특징이 잘 표현된 의상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문양의 반복과 블랙과 골드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라인들과 곡선의 실루엣이 만드는 반복적인 문양들을 모티브로 직선적인 라인과 눈의 곡선라인을 결합하여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고자 한다.

<표16> 작품3 : 공존 - 일러스트

일러스트	M-up 디자인	
	특징	아르데코의 특징인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이용한 메이크업
	피부 표현	내추럴 한 피부표현과 핑크색으로 볼에 생기를 줌
	눈	눈썹은 브라운 톤으로 자연스럽게 표현 (형태가 분명한 도형이 들어가므로 강조되지 않게 표현)하고, 골드 펄새도우로 은은하게 눈두덩이를 펴바른다. 눈의 곡선 라인을 따라 직선적인 도형을 반복적으로 그려준다. 바깥 라인을 따라서 옐로우 크림 새도우라인을 강조하고 골드 스톤으로 포인트를 준다.
	립	내추럴한 인디핑크로 글로시하게 표현
NCS 색상분포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 S 1020-R ● S 0570-Y ● S 1020-Y ● S 1050-Y80R ● S 4550-Y ● S 8502-G	

<표17> 작품3 : 공존 - 작품사진



5.3. 로맨틱한 이미지의 작품을 응용한 메이크업 제안

1930년대 낭만주의적인 무드가 유행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나타난 비오네의 로맨틱한 디자인을 모티브로 로맨틱한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장식적인 요소의 특징을 응용하여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5.3.1 라메 크리스탈린 풍의 드레스

비오네의 이 작품은 화려한 색채와 볼륨감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함과 우아함, 볼륨감 등을 통해 장식적인 요소의 특징을 가지는 로맨틱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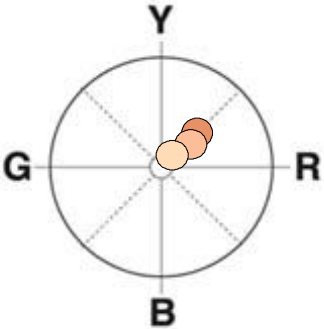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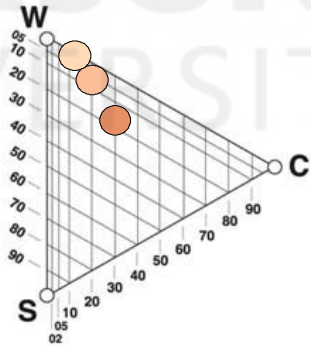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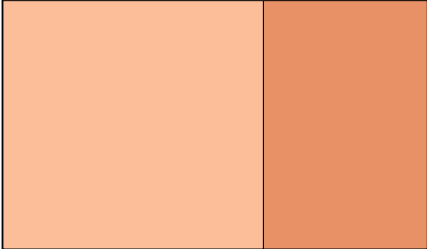
금속사인 라메를 사용하였으며 아르누보의 영향으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포도 무늬와 로맨틱한 분위기의 리본장식으로 여성스러움을 더 하였다. 또한 광택을 이용한 입체적인 표면장식이 특징적으로 보여진다.

1922년 투탕카멘 왕의 무덤 발견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고대 이집트 문화에 열광하게 만들었으며 이국적인 색채와 금색의 사용을 불러왔다. 비오네의 작품들 속에서도 금색을 사용한 작품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디자인이 그 특징을 잘 표현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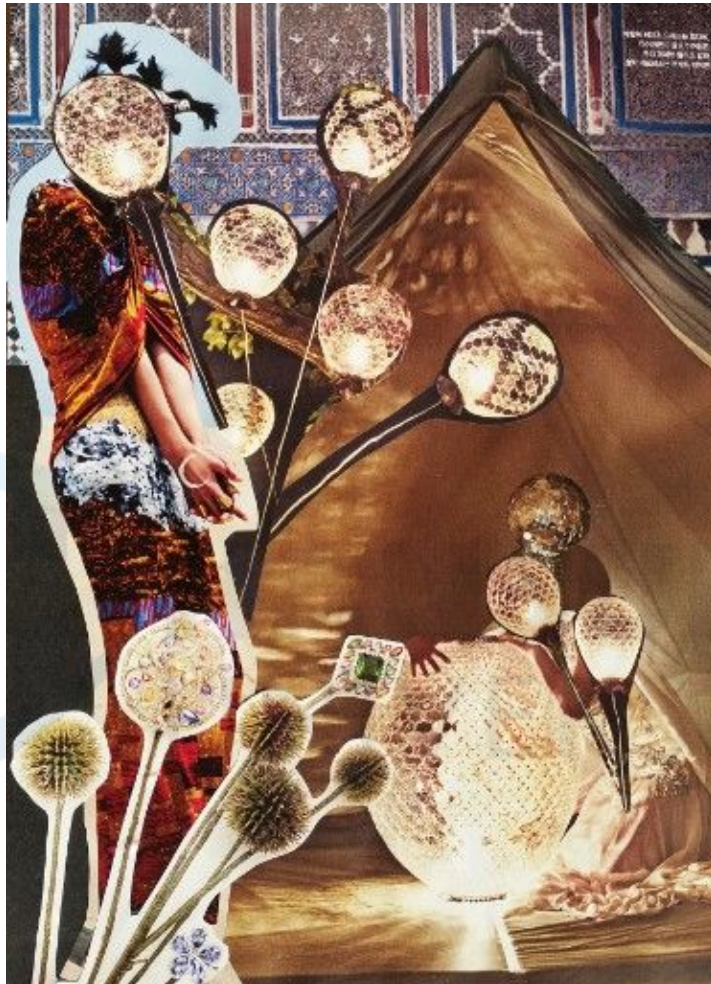
이에 본연구자는 이 작품의 특징인 금색을 기본으로 이집트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이미지 맵을 구성하고 이를 모티브로 하여 광택이 있는 입체적인 표면장식을 이용한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18>,<표19>,<표20>,<표21>은 연구자가 본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도표 및 작품이다.

<표18> 작품4 : 찬란했던 기억 저편 - 모티브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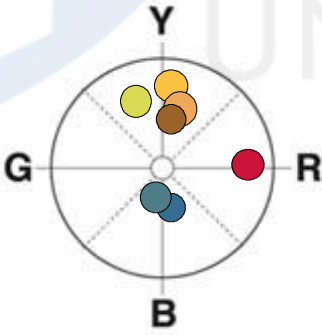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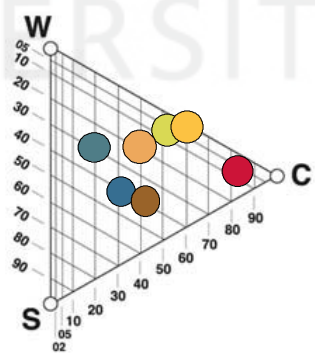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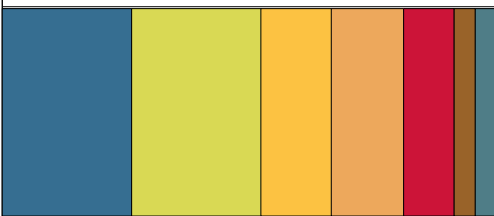
모티브 작품	NCS 색상분포
http://blog.naver.com/jongddeee?Redirect=Log&logNo=100155790551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 S 2030-Y50R ● S 1020-Y60R ● S 0515-Y60R

<표19> 작품4 : 찬란했던 기억 저편 - 이미지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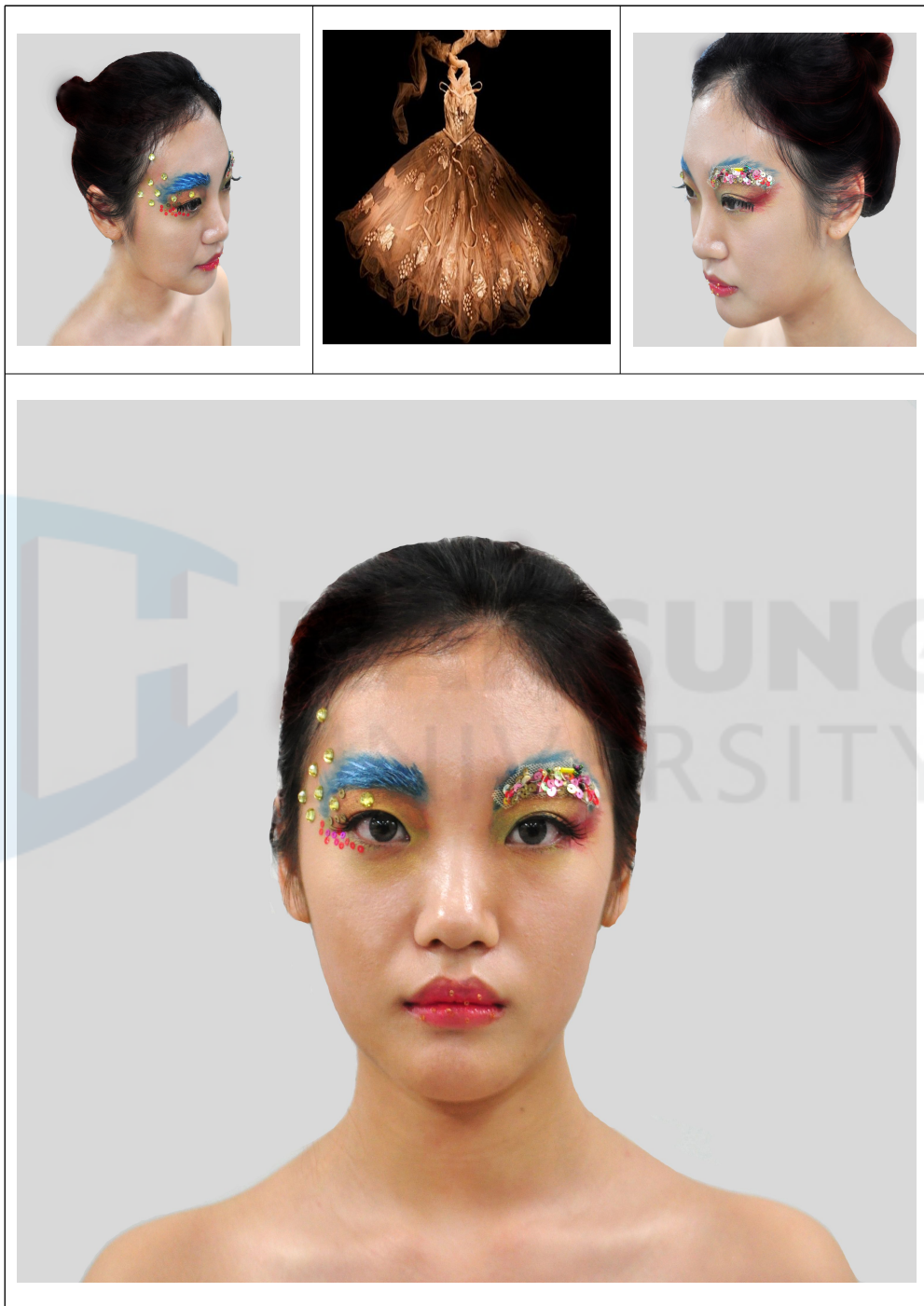


이국적인 취향의 유행 특징이 잘 표현된 라메 크리놀린 드레스의 이미지를 금색을 기본으로 이국적인 느낌의 자수나 문양, 원색적인 컬러들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의상에서 보여졌던 포도 문양의 반복적이고 입체적인 장식을 둥근 형태의 이미지들로 나타내었다. 이를 모티브로 이국적인 색채와 광택이 있는 입체적인 장식들을 사용하여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고자 한다.

<표20> 작품4 : 찬란했던 기억 저편 - 일러스트

일러스트	M-up 디자인	
	특징	이국적인 색채를 이용한 메이크업
	피부 표현	글로시한 느낌의 피부표현으로 펄 하 이 라이트를 이용하여 T존을 강조하고 모델이 가진 피부 톤보다 한 톤 어둡게 표현한다.
	눈	가발을 착용했던 이집트인들의 느낌으로 눈썹을 곁을 살려 블루색상으로 표현(아 쿠아 물감 사용)하고 광택을 이용한 표면 질감 을 나타내기 위해 골드, 레드,그린 의 색감을 이용하여 눈에 음영을 준다. 비즈와 스팅글을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느낌을 강조하고 이집트 파라오의 완벽한 대칭적 이미지와 반대로 비오네의 비대칭적 요소를 적용
	립	비오네가 즐겨 사용했던 주황빛이 도 는 레드로 글로시하게 표현
NCS 색상분포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 S 4030-R90B ● S 1080-R ● S 1050-G80Y ● S 4040-Y20R ● S 0560-Y10R ● S 3020-B10G ● S 2040-Y20R	

<표21> 작품4 : 찬란했던 기억 저편 - 작품사진



5.3.2. 비오네 로즈 드레스

이 작품은 1930년대 후반 낭만적인 무드의 유행 속에 발표된 의상으로 비오네 로즈라 불리는 장미장식이 특징적으로 보여 진다.

비오네 로즈라 불리는 이 장미 문양은 비오네가 즐겨 사용하였던 장식적 요소로써 그녀의 디자인에 자주 등장하였다.

비오네는 장미문양을 단순화시켜 입체적인 방식으로 표현 하였는데, 여러 개의 바이어스 끈을 돌려가며 형태를 만들거나 직물의 표면에 털을 심어 만든 벨벳이나 털의 질감에서 오는 입체감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지고 싶은 촉각적인 가치와 풍성한 볼륨감에서 오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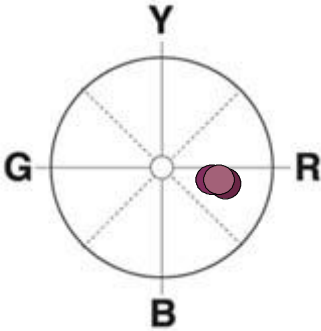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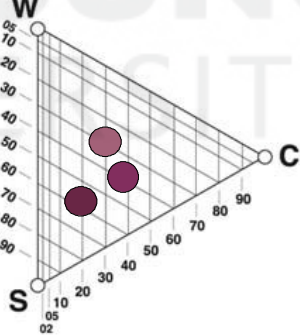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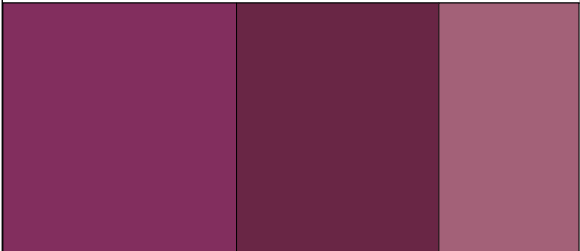
이 작품에서도 벨벳 소재를 사용하므로 곁에 따라 표면이 진출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장미문양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문양과 함께 여성스러움을 더해주는 요소로 프린세스 실루엣과 홀터네크라인을 사용하였는데, 홀터네크라인으로 드러난 어깨는 스커트의 볼륨감과 함께 낭만적인 무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비오네 로즈와 낭만적인 무드를 표현할 수 있는 로맨틱한 감성의 이미지 맵을 구성하고 이를 모티브로 하여 비오네의 로즈를 상징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통해 비오네 로즈 드레스와 조화를 이루는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22>,<표23>,<표24>,<표25>은 연구자가 본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도표 및 작품이다.

<표22> 작품5 : 꽃에 물들다 - 모티브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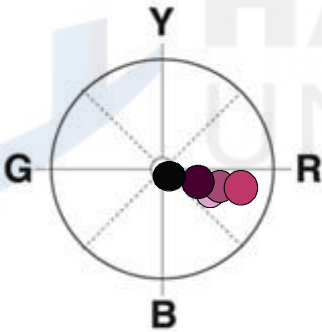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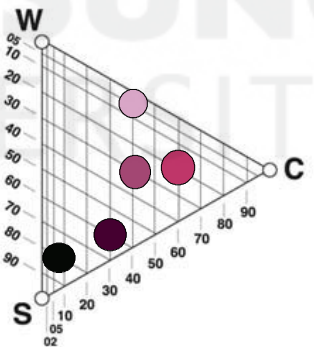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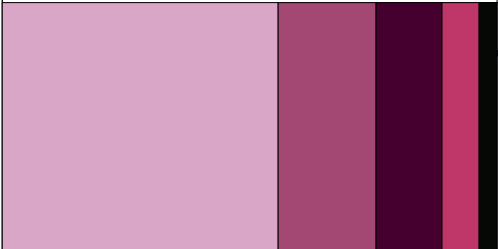
모티브 작품	NCS 색상분포
http://cafe.naver.com/ownstyle2/545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 S 4040-R30B ● S 6020-R30B ● S 3030-R20B

<표23> 작품5 : 꽃에 물들다 - 이미지 맵



비오네 로즈라 불리는 장미장식이 특징인 이 드레스의 이미지를 장미와 핑크와 퍼플컬러를 이용하여 여성스러운 로맨틱 감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를 모티브로 한 메이크업 디자인에서는 꽃무늬를 아이메이크업에 포인트로 응용하여 핑크색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표24> 작품5 : 꽃에 물들다 - 일러스트

일러스트	M-up 디자인	
	특징	비오네 로즈 장식을 이용한 메이크업
	피부 표현	윤기 있고 깨끗한 느낌의 전체적인 피부를 표현하고 연한 보랏빛이 도는 핑크컬러로 한쪽 눈을 중심으로 C자 형태로 부드럽게 터치하여 표현
	눈	핑크와 퍼플로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눈매연출 왼쪽 눈을 중심으로 장미문양을 그려 넣고 오른쪽은 눈 옆 라인을 따라 C자 형태로 부드럽게 터치 아이라인은 강조하지 않음
	립	핑크 톤으로 내추럴하게 표현
NCS 색상분포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S 1040-R40B  S 8010-R50B  S 3040-R30B  S 6030-R30B  S 2060-R20B	

<표25>작품5 : 꽃에 물들다 - 작품사진



5.3.3 별무늬가 있는 쉬폰 드레스

이 작품은 비오네 디자인의 장식적인 요소와 드레이프 지는 실루엣의 특징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길고 슬림한 실루엣에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드레이프 지는 느낌과 샤이니 한 블루의 별무늬가 특징적으로 보여 진다.

색상은 부드러운 옐로우 빛이 가미된 아이보리 컬러와 샤이니 한 블루가 합쳐져 별무늬를 더욱 강조되게 표현하였으며, 비오네의 다른 의상에서 보여 지는 무늬의 특징과 같이 아르데코의 영향을 받아 반복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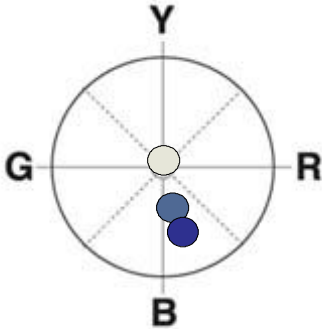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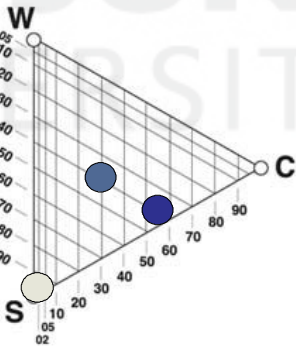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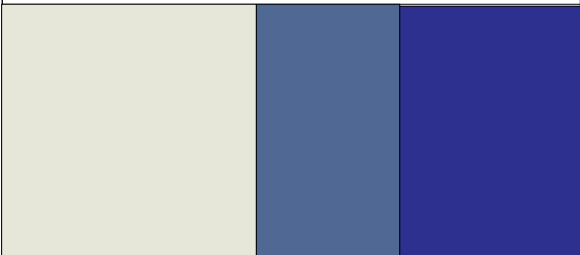
목선은 하이넥으로 단정한 느낌을 보여주며 아래로 내려 갈수록 넓은 플레어를 주어 자연스럽게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길고 슬림한 실루엣에 별무늬가 주는 경쾌함이 합쳐져 세련된 감각의 로맨틱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반복적인 별무늬가 주는 경쾌함과 샤이니 한 느낌의 장식성이 강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이미지 맵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모티브로 하여 별무늬가 있는 쉬폰 드레스의 작품에서 선명하게 보여 지는 샤이니 한 블루컬러를 포인트로 별 무늬가 있는 쉬폰 드레스와 조화를 이루는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26>, <표27>, <표28>, <표29>는 연구자가 본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도표 및 작품이다.

<표26> 작품6 : 블루 스타 - 모티브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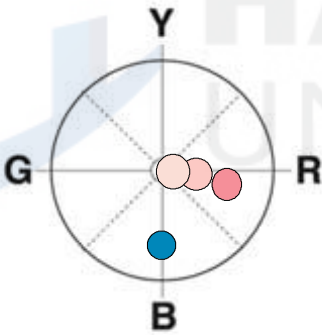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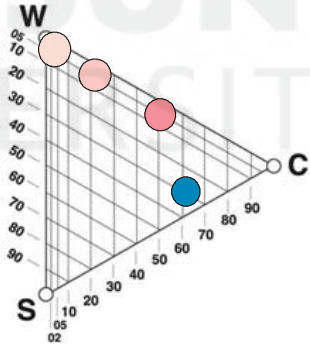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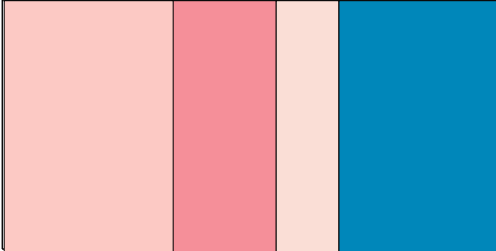
모티브 작품	NCS 색상분포
http://cafe.naver.com/ownstyle2/545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 S 4055-R70B ● S 4030-R80B ● S 1002-Y

<표27> 작품6 : 블루 스타 - 이미지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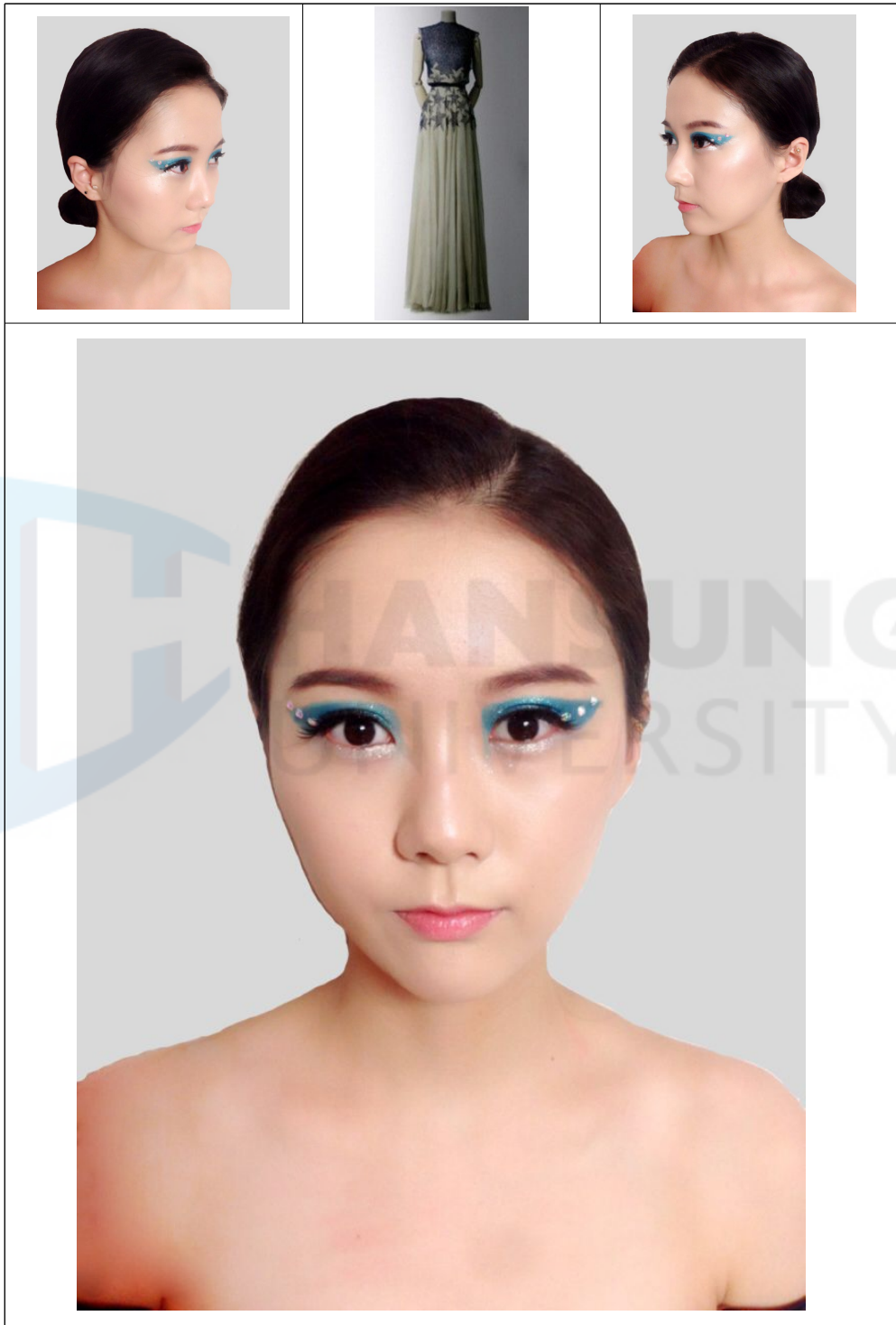


비오네가 자주 사용하였던 장식중의 하나인 별무늬가 들어간 드레스의 경쾌한 이미지를 현대적인 아이템들로 조합하여 표현하여 보았다. 별무늬에서 표현된 반짝이는 요소를 광택이 있고 블링블링한 아이템들로 조합하여 여성미를 나타내었다. 이를 모티브로 한 메이크업 디자인에서는 드레스에서 사용된 블루 컬러를 글로시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표28> 작품6 : 블루 스타 - 일러스트

일러스트	M-up 디자인	
	특징	샤이니 한 블루컬러를 이용한 메이크업
	피부 표현	윤기 있고 깨끗한 피부표현과 피치 컬러로 가볍게 볼터치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표현
	눈	펼 감이 강한 블루컬러의 크림 새도우를 이용하여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표현하고 은색 스톤 장식을 눈꼬리 부분에 상승형태로 부착 블랙의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또렷하게 연출 아래라인은 은색의 펄로 그라데이션
	립	피치 컬러로 생기 있게 표현
NCS 색상분포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 S 2060-B ● S 0550-R10B ● S 0520-R ● S 0510-R	

<표29>작품6 : 블루 스타 - 작품사진



5.4. 엘레강스한 이미지의 작품을 응용한 메이크업 제안

고대 그리스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비오네 디자인의 특징인 우아한 여성미가 돋보이는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모티브로 자연스럽게 드레이프지는 디자인적 요소를 메이크업 디자인에 접목시켜 표현하고자 한다.

5.4.1 가디스 드레스(goddess d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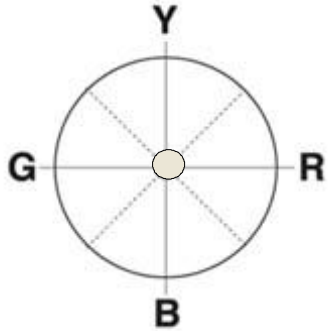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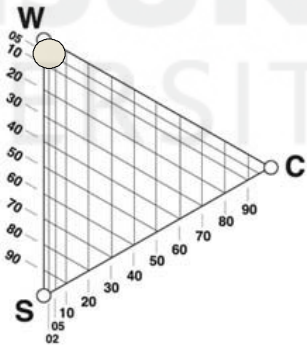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의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코르셋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다. 고대 그리스의 여신과 같은 모습의 이 드레스는 편안하게 감싸 두른 천으로 여성인체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더욱 강조 하였으며, 부드러운 옷자락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서 펼쳐거리는 모습이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바이어스 컷과 원단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색상과 소재는 밝은 색상 위주의 단색과 얇고 부드러운 표면 질감의 소재를 사용하여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특징적으로 보여 지는 틀에 박힌 듯한 정형화 된 디자인이 아닌 사람의 몸을 구속하지 않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바람에 날리는 듯한 자유로움을 포인트로 하여 이를 형상화한 이미지들을 통해 이미지 맵을 구성하였다.

이를 모티브로 하여 공중에 떠 있는 듯 날아갈 듯한 자유로움을 파랑색 컬러와 눈의 연장선으로 상승형의 곡선의 라인을 통해 표현하여 가디스 드레스와 조화를 이루는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30>,<표31>,<표32>,<표33>은 연구자가 본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도표 및 작품이다.

<표30> 작품7 : 틀을 벗어나 - 모티브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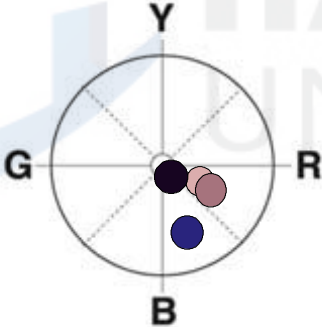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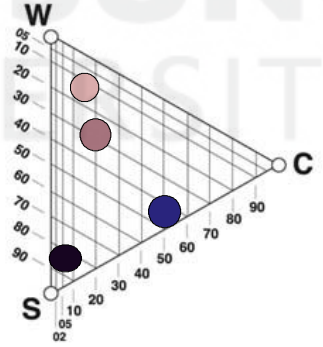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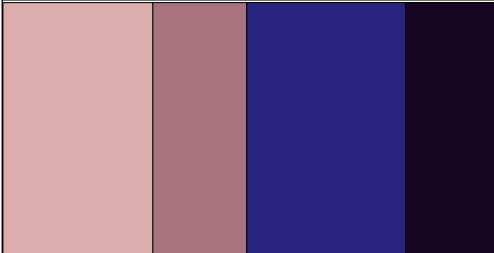
모티브 작품	NCS 색상분포
세상을 바꾼 50가지 드레스, p19.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S 1002-Y50R

<표31> 작품7 : 틀을 벗어나 - 이미지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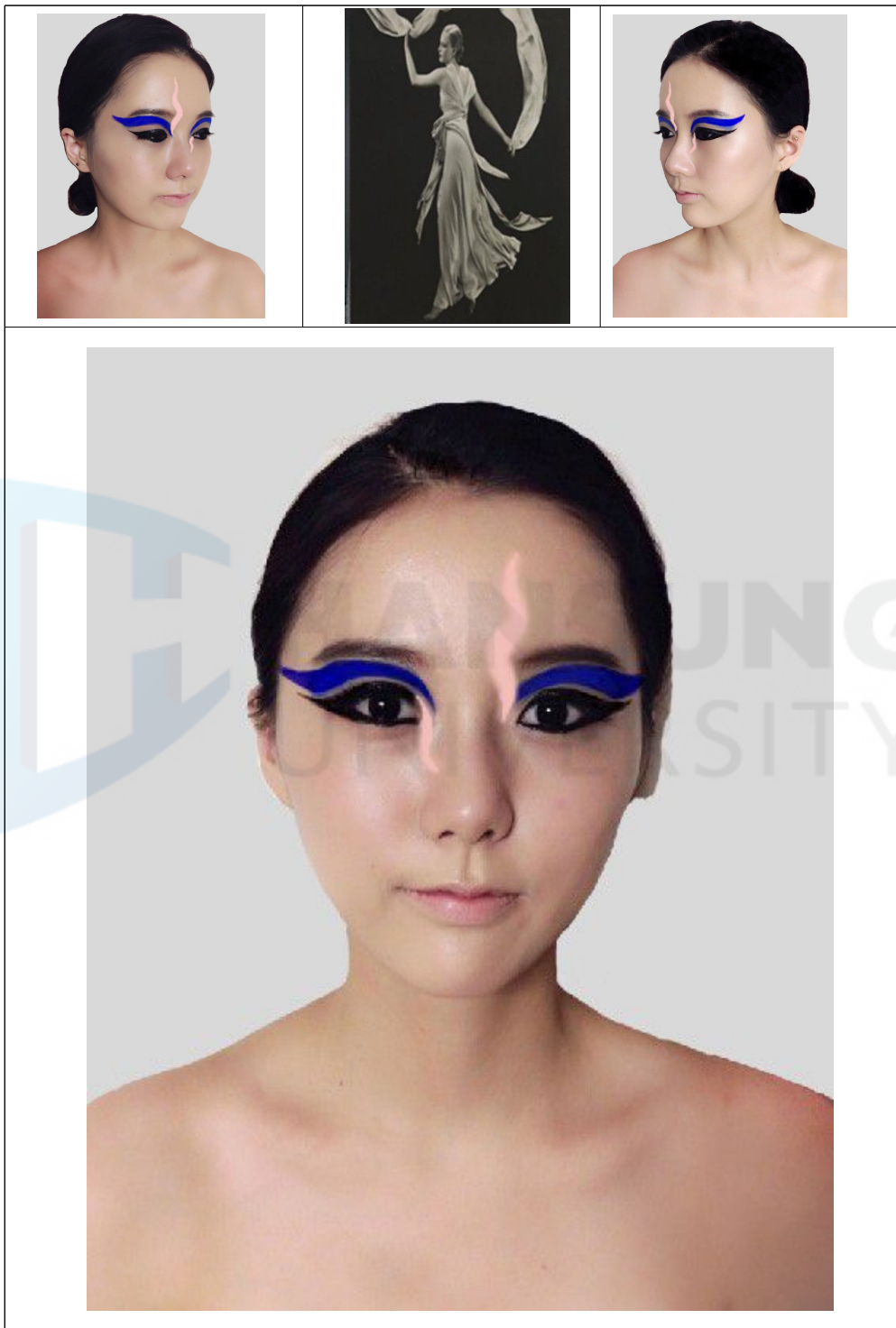


공중을 날아가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이 작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모티브로 하여 이미지 맵에서는 렌즈로 들여다 본 듯 구부러져 있는 이미지나 바람에 날리는 듯한 이미지들로 의상에서 보여 진 자연스러운 곡선의 느낌을 표현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날아가는 듯한 곡선을 아이메이크업의 포인트로 하여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고자 한다.

<표32> 작품7 : 틀을 벗어나 - 일러스트

일러스트	M-up 디자인	
	특징	드레이프 형상을 이용한 메이크업
	피부 표현	아이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기 위하여 피부는 매트한 느낌으로 표현 핑크색 볼터치를 약하게 표현
	눈	비비드한 블루 컬러를 아이 홀을 따라 그려주고 아이라인을 두껍고 길게 그려 눈매를 강조. 블루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인에 연결되어 날아가는 듯 유연한 드레스의 형상을 인디핑크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표현
	립	누드 립으로 피부 톤과 동일하게 표현
NCS 색상분포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값	
	● S 1515-R10B ● S 3020-R20B ● S 4550-R70B ● S 8010-R50B	

<표33>작품7 : 틀을 벗어나 - 작품사진



5.4.2 새틴 이브닝 드레스

이 작품은 그린컬러에 광택이 나는 소재를 이용하여 소재와 빛과의 조화로 인한 미묘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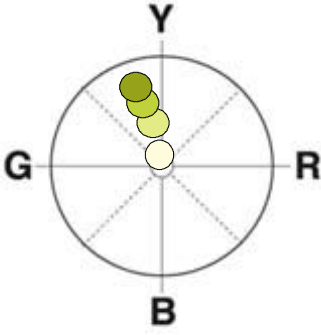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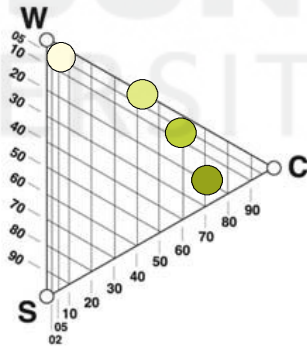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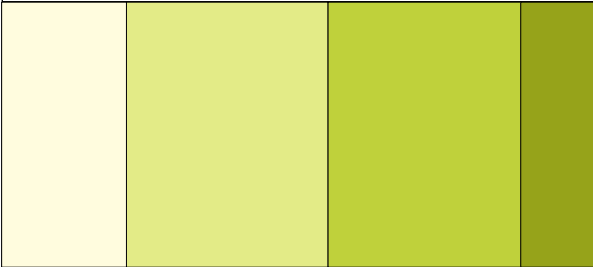
또한 고대 그리스 복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성의 아름다운 몸에 옷감이 흘러내려 하나로 표현되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낸다.

등 부분이 브리 넥으로 깊게 파여 관능적인 여성미 또한 느낄 수 있으며, 여밈은 랩의 형태로 겹쳐서 착용하는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다. 이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넓은 소매와 자연스러운 주름으로 생기는 공간이 인체의 억압이 아닌 인체의 자유와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이 작품에서 가장 강하게 보여 지는 선명한 그린 컬러를 중심으로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미지 맵으로 나타내고자 하며, 이를 모티브로 하여 그린 컬러의 새틴 이브닝 드레스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옐로우와 브라운 색감을 매치하여 컬러가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34>,<표35>,<표36>,<표37>은 연구자가 본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도표 및 작품이다.

<표34> 작품8 : 숲의 여신 - 모티브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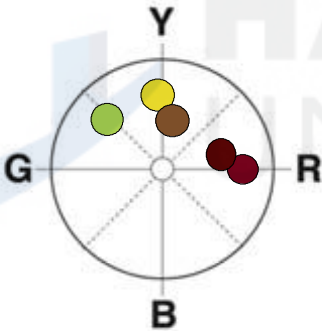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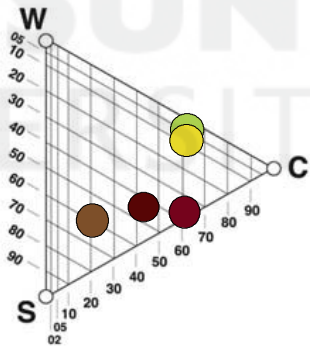
모티브 작품	NCS 색상분포
http://blog.naver.com/qnp486?Redirect=Log&logNo=60051375720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S 0540-G70Y  S 1060-G70Y  S 2070-G70Y  S 0505- Y

<표35> 작품8 : 숲의 여신 - 이미지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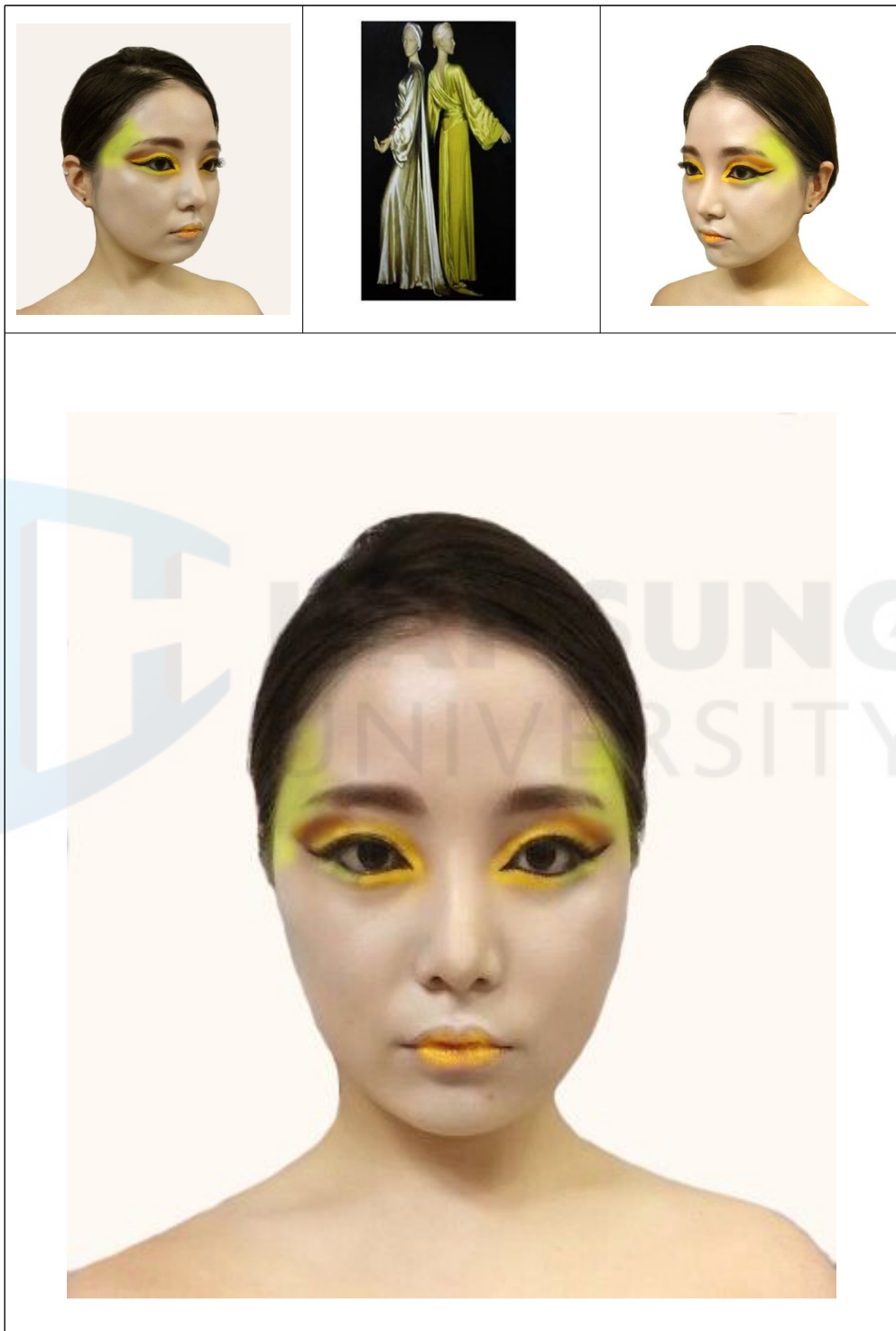


세틴소재의 우아한 라인으로 성숙한 여성미를 나타내는 드레스의 특징을 그린 컬러를 베이스로 하여 숲속의 여신과도 같은 이미지로 표현하여 보았다. 그린 컬러의 숲속과 조화를 이루는 옐로우와 브라운 컬러를 더하여 컬러를 매치 하였으며, 이를 모티브로 한 메이크업 디자인에서는 드레스의 그린컬러를 중심으로 이미지 맵에서 사용된 컬러를 더하여 컬러 포인트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36> 작품8 : 숲의 여신 - 일러스트

일러스트	M-up 디자인	
	특징	그린컬러의 드레스와 조화를 이루는 컬러 중심의 메이크업
	피부 표현	피부의 결점을 커버 하고 광택이 있는 피부로 매끈하게 표현
	눈	그린컬러를 눈썹 뼈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고 아이 홀을 중심으로 바깥라인은 브라운 톤, 안쪽라인은 옐로우와 그린컬러 새도우로 채워준다. 블랙의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길게 표현
	립	옐로우 색상으로 매트하게 표현
NCS 색상분포	NCS 명도 채도 분포	
		
팔레트	색상 값	
	● S 1060-G50Y ● S 5540-Y90R ● S 1060-G90Y ● S 3560-R ● S 6020-Y20R	

<표37>작품8 : 숲의 여신 - 작품사진



VI. 결 론

본 연구자는 여성의 인체를 있는 그대로의 미적 대상으로 존중하며 다양한 기법들을 창조하여 사람중심의 디자인을 전개한 마들렌 비오네의 의상 디자인 특성을 통해 그녀의 의상과 조화를 이루는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마들렌 비오네는 신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우아한 관능미를 표출하는 디자인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아름다움을 디자인한다.’라는 그녀의 디자인 철학처럼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녀가 보여준 단순함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비오네의 패턴 양식을 통해 인체에 대한 복잡한 분석과 노력이 숨어 있었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고도의 계산된 절제미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 특성을 응용한 패션쇼 메이크업 제안을 위해 비오네의 작품을 통해 표현된 미적 특성을 패션 이미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먼저 당시 유행하였던 예술사조인 아르데코와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비오네의 디자인에서도 단순하고 간결한 실루엣과 기하학적인 문양, 단순화된 문양의 반복 등의 특징이 나타나며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또한 낭만주의의 부활로 나타난 크리놀린 풍의 드레스와 입체적인 장미 문양, 툴 소재의 사용으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나타내며 장식적인 요소에 의한 로맨틱한 여성미가 나타났다. 비오네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우아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광택 있는 소재와 바이어스 재단과 드레이핑에 의한 몸에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연출하며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패션쇼 메이크업 제안에서는 비오네의 디자인의 특징을 패션이미지로 분류한 모던, 로맨틱, 엘레강스 이미지를 기준으로 각각의 이미지가 가장 잘 표현된 비오네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메이크업 제안에 있어 비오네의 디자인의 특징이었던 자유로운 소재 사용과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하

기 위한 메이크업을 시도하였으며, 비오네의 디자인적 특성을 살린 도형을 이용한 메이크업이나 드레이핑의 형태를 이용한 메이크업 제안을 통해 다른 디자이너들과 구별되는 마들렌 비오네만의 차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작품 1>에서는 비오네 디자인의 단순함과 간결함을 나타내는 모던한 이미지로 블랙의 컬러에 시스루한 소재를 이용하여 건축적인 조형미를 표현한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였다. 블랙의 시스루 소재로 빛에 따라 명암이 달라지는 의상 컬러의 특징 분석과 모던한 라인을 강조한 이미지 맵을 바탕으로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였다. 매트하고 깔끔하게 피부를 표현하였으며, 블랙의 라인을 이용하여 눈썹을 타고 오르는 듯한 곡선을 강조하였다. 눈을 중심으로 블랙의 라인을 강조하여 미래지향적인 단순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2>에서는 천을 삼각형, 사각형, 사분원등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조각으로 나누어 몸에 굴곡에 맞게 디자인한 바이어스 컷 드레스를 모티브로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옐로우 컬러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컬러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하학적인 형태 중 삼각형을 이용하여 도형들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형태를 이미지 맵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삼각형을 이용한 눈을 중심으로 하는 패션쇼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여 비오네 디자인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3>에서는 아르데코 양식의 특징적인 요소인 직선과 곡선의 반복적인 문양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옐로우 베이지를 베이스로 블랙과 골드를 포인트로 하는 컬러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의 모던한 감각을 이미지 맵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의 눈의 곡선과 대조를 이루는 직선적인 문양을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로 하여 블랙과 옐로우, 골드 색상으로 아르데코 문양의 드레스와 조화를 이루는 패션쇼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였다.

<작품 4>에서는 금색의 화려함과 볼륨감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로맨틱한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였다. 살구 빛이 도는 금색의 화려한 색채 분석과 이집트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미지 맵을 통해 이국적인 색채와 광택, 다양한 부자재를 이용한 입체적인 표면장식을 포인트로 하여 당시 유럽인들이 열광했던 이집트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패션쇼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5>에서는 낭만적인 무드의 유행에서 발표된 비오네 로즈장식을 특징으로 하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하여 패션쇼 메이크업 제안하였다. 드레스의 자주빛 벨벳을 통해 나타나는 컬러 분석과 비오네 로즈의 낭만적인 무드를 표현한 로맨틱한 이미지 맵을 통해 꽃무늬를 아이메이크업의 포인트로 응용하여 비오네 디자인의 로맨틱한 이미지를 패션쇼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6>에서는 길고 슬림 한 실루엣에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드레이프 지는 느낌과 샤이니 한 별무늬가 특징적으로 보여 지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와 별무늬가 주는 경쾌함을 합쳐진 세련된 감각의 로맨틱한 이미지를 패션쇼 메이크업으로 표현 하였다. 드레스 디자인의 블루를 포인트로 하는 컬러 분석과 장식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경쾌하게 반짝이는 아이템들을 이용한 이미지 맵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반짝임이 강조되는 블루 컬러 아이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였다. 별 무늬 쉬폰 드레스에서 느껴지는 단순함과 같이 과하지 않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7>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패션쇼 메이크업을 제안하였다. 부드러운 옷자락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서 펄럭거리는 모습을 포인트로 하여 이를 형상화한 이미지들을 통해 이미지 맵을 구성하였으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자유로움을 파랑색 컬러와 눈의 연장선으로 상승형의 곡선을 통해 표현하였다.

<작품 8>에서는 그린컬러의 광택이 나는 소재와 빛과의 조화를 통해 표현되는 미묘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낼 수 있는 패션쇼 메이크업을 디자인하였다.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컬러의 변화를 분석하고 새틴소재의 우아한 라인으로 성숙한 여성미를 나타내는 드레스의 특징을 숲속의 여신과 같은 느낌으로 이미지 맵을 구성하였다. 이를 모티브로 한 메이크업 디자인에서는 드레스의 그린 컬러를 중심으로 옐로우 컬러를 더하여 환상적인 이미지의 패션쇼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였다.

이상의 패션쇼 메이크업 제안을 통해 의상디자인의 기법을 응용한 다양한 포인트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통한 패션쇼 메이크업 연구로 메이크업의 재료나 기법이 다양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의 표현은 토탈 코디네이션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패션 쇼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시즌 트렌드 뿐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의 철저한 작품분석을 통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시대를 초월하는 미를 추구하며 기존의 전통법칙을 깨는 새로운 시도로 자신만의 독특한 미의 표현방식을 창출해낸 마들렌 비오네의 작품세계연구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뷰티 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지희,정윤희,황윤정. (2006). 『20세기 화장 문화사』.

이재정,박신미. (2011). 『패션, 문화를 말하다』.

김영옥,안수경,조신현. (2009).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서울 : 경춘사

장성은,이종숙. (2008). 『토탈패션.뷰티 코디네이션』. 서울 : 경춘사

정현숙. (1992). 『20세기 패션』. 서울 : 경춘사

한성지,김이영. (2007). 『패션 디자인』. 서울 : 교학연구사

디자인 뮤지엄. (2010). 『세상을 바꾼 50가지 드레스』. 서울 : 홍디자인

2. 학위논문

안삼문. (2004). 『비오네의 컷을 응용한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진영. (2010). 『클래식 패션 스타일의 현대적 응용』.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 논문

신미진. (2010). 『마들렌 비오네의 기하학적 패턴을 응용한 현대 의상 디자인
』.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진영,임은혁. (2011).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에 나타난 촉각적 가치』

이정완. (2008). 『아르누보 이미지의 드레스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선. (2011). 『아르데코의 조형성을 응용한 구두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
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진영. (2006). 『여성 패션 디자이너의 디자인 특성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학술지

- 원명심. (2008). 『아르테코 패션과 미술사조』. 한국기초조형학회
- 김희선, 강삼모, 백선영. (2011). 『2009년 패션쇼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패션 스타일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 최진영, 조규화. (2010). 『크리스찬 디오르 컬렉션에 나타난 비오네 디자인 이미지』. 패션비즈니스학회

4. 국외문헌

- Gerda Buxbaum. (2009).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서울 : 미술문화
- J.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2005). 『A History of Fashion』. 서울 : 간디서원
- Bonnie English. (2011). 『Fashion : the 50 most influential fashion designers of all time 』. 서울 : 미술문화
- Harriet Worsley. (2012). 『100 Ideas that Changed Fashion』. 서울 : Seedpost
- Ernst H. J. Gombrich. (1997). 『The Story of Art』. 서울 : 예경
- Nicole Tuffelli. (2004). 『LAROUSSE History of Western Art V』. 서울 : 생각의 나무
- Bernard. Edina. (2004). 『LAROUSSE History of Western Art VI』. 서울 : 생각의 나무

6. 인터넷 사이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6240

<http://justinceo.blog.me/30176975553>

<http://m.blog.daum.net/shinryong/2697253>

<http://blog.naver.com/amarytak?Redirect=Log&logNo=125988170>

<http://timetree.zum.com/24534>

<http://www.dongabiz.com>

http://luxury.design.co.kr/in_magazine/subhtml?at=view&info_id=47383&c_id=00010001

<http://blog.naver.com/didnrqhd1?Redirect=Log&logNo=1120505145>

<http://blog.naver.com/roselina0301?Redirect=Log&logNo=8020384950>

<http://blog.naver.com/innerchild05?Redirect=Log&logNo=701444750>

<http://blog.naver.com/bgaggai?Redirect=Log&logNo=50129129830>

<http://blog.naver.com/linnco?Redirect=Log&logNo=30143040616>

<http://blog.naver.com/boorook111?Redirect=Log&logNo=150180952503>

<http://cafe.naver.com/ownstyle2/545>

<http://blog.naver.com/qnnp486?Redirect=Log&logNo=60051375720>

Vogue website, 2014.05

<http://blog.naver.com/amarytak/1259881>

ABSTRACT

A Proposal of Make-up Application to a Fashion Show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Madeleine Vionnet

Kim, Eun-Jin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based on a non-flat body of the person to understand the three-dimensional approach in terms of the human body through the art world by Madeleine Investigation of Violent called Take one of the fashion design and clothing construction of her design characteristics and present day sensibilities so the balance, we propose that combines fashion makeup.

Violent Madeleine was to respect the human pursuit of natural beauty clothes are not binding on the human body, where she developed a variety of techniques such as draping and bias cut is the basis for the modern fashion of inspiration for many fashion designers so far the source is coming. Therefore, the creation of their own and unique artistry and innovative and to harmonize the body and the person of the cloth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pioneering technology was expressed Violent beauty of women in the study who seek the true beauty of a woman is her beauty design shows that might be worth a study. In addition, due to the Second World War, 100 years after the last closing current Violent house is newly reborn'm going to propose a collection fashion show makeup make up her work in

harmony with the world.

Scope and methods of the present study was Madeleine Violent wangseonghi before and after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the 1920s and 1930s were a time of active life and times of Violent background, through the art yarns such as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Violent was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work based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presented Violent effectively presented and proposed forming a characteristic fashion makeup and costume design harmony.

Obtained through the study conclusion is as follows.

Violent Madeleine was active from 1912 to 1939, the 1910s demonstrated the flowing lines of ketones, such as flexibility and clothing of ancient Greece in oriental costume, 1920, the simple, geometric, and does not constrain the tubular body silhouette through gradual repetition of patterns and colors and showed the beauty you have configured the new biryemi. 1930 has been shown to transition to adult-like mode, and also inspired by the ancient Greek elegant and sensual dress doubles and romantic revival romantic style crinoline dress.

Violent through which accommodates flow time and as affected by the Art Deco style that is characterized by its simplicity and geometric forms of Art Nouveau and the then prevailing zeitgeist art was beautiful curves of nature with soft tones of pastel motif is shown.

Formative features include removing the artificial structures for the flexible body of the flow and crepe, jersey, silk, etc. use a soft, flexible material elegant femininity were expressed by the brilliance of materials and similar skin tone shades. Also became a groundbreaking attempt to change the human body created a bias cut and draping that is the basis of modern clothing consists of a three-dimensional concept, not a plane. The aesthetics of the design throughout the property, expressed in the work of Violent fashionable at the time who joins art deco and art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esented in a simple design, such as the impact of industrialization Violent and simple silhouettes and geometric patterns, simplified were that represents the simplicity of

the modern image of the pattern repeat, etc., is a romantic femininity presented by the romanticism of the resurrection-style dress with crinoline three-dimensional rose pattern, decorative elements represents the silhouette of a voluminous tulle material used appeared. Elegant women's sensuality that represents the most representative image of Violent design is to produce a glowing silhouette flowing to the body by a glossy material and bias cut and draping, and expressed the sensual femininity.

Fashion show based on the above study, we propose a fashion make-up make-up proposals that make up the design and coordination of the design features that best represented the work of Violent motif. There were also suggestions to try to make up with fabric and embroidery to represent the three-dimensional texture and features free material was used in the design of the Violent, eye makeup was achieved through a three-dimensional animated them. The only difference Madeleine Violent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designers using the form proposed by the make-up of make-up and draping with a shape utilizing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Violent we want to express.

Was confirmed that more than a fashion show makeup costume design various points through the proposed makeup application techniques used in the material or is available, as well as the future of the Madeleine Violent through a fashion show make-up make-up research through design of the various other designers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were able to determine the potential that can be diversified. It is also thought that because the US is delivered in the form of representation of the total coordination fashion show season, even in the make-up trends as well be the makeup design work through a thorough analysis of the fashion designer.

US to pursue a new approach works and timeless beauty in this world through the beauty industry to pursue the study of Madeleine Violent came up with creating a representation of the unique beauty of its own as a new attempt to break the existing traditional laws are constantly I hope being done by.

【Key words】 : Bias cut, draping, Madeleine Violent, Art Deco, Art Nouveau